10□□ 1~2□:Aug_Rev 2010-10-12 □□ 2:34 Page 1


#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198호 2010년 10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모교 의예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서민정 양(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 전 프로그램' 에서 같은 과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모교 홍보부>

# 동포자녀 모교행 부쩍 늘어

## '미 명문대 합격' 에도 서울대로

미주 동포 자녀들이 미 명문대 입학도 포기하고 서울대를 지원해 입학하는 등 고국대학 지원율이 부쩍 늘고 있다.

올해만 100명이 넘는 미주 동포 학생이 모교 서울대를 비롯해 연·고대 등 한국 주요 10개 대학에 입학했다.

모교 입학관리본부는 최근 9명의 미주 동포들이 9월부터 시작된 2학기 신입생으로 입학했다고 밝혔다.

특히 LA의 글렌데일 고교 출신 서민정 양은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서 양은 UC 버클리 UCLA USC 등 명문대에도 합격했으나 최종적으로 서울대를 택했다.

모교는 이번 2학기부터 이민 2세 및 외국인 대상 입학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고 첫 혜택이 서 양에게 주어진 것이다.

서 양은 일정 성적을 유지할 경우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월 생활비, 기숙사비 등을 제공받게 된다. 서 양 외에 아이비 리그 코넬대 입학을 포기한 남학생도 있다고 모교측은 밝히고 있다.

모교는 기존 1년 1회 실시하던 외국인 특별 전형을 올해부터 2회로 늘렸고 미주 지역을 돌며 개교 이래 첫 단독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모교 입학관리본부 손지은 입학사정관은 "미주 지역을 포함 세계 각지 우수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이들 중 세계 수준의 성취도에 해외 명문 대학에 합격생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 말했다.

이들이 모교 등 한국 대학행을 선택한 배경과 이유는 '글로벌 대학' 을 표방해 우수 외국인 교수 및 해외학생 영입에 발빗고 나서왔기 때문이다.

고국 정부도 대학의 이같은 목표에 적극 협력을 하고 있다. 해외 시민권자로 한국 유학 학생들을 위해 한국내 취업문을 넓혔다. 종전 이공계 전공자에 한해서 취업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추가 구직기간을 허용했지만 2007년 말부터 유학생 중 인문계 석사이상 학위취득자에게도 한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동포 학생들 의식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굳이 미국 대학을 나와 미국 내에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한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미국에서 나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대학(원) 졸업이 한국 문화와 언어 습득은 물론 졸업시 한국 대기업 취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상사 요원으로 취직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및 컨설팅 펌 입사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교가 올해부터 외국인 특별전형을 늘리면서 개교 이래 첫 미주지역 단독 입학설명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이 같은 대학·정부·학생의 변화가 깔려 있다. 모교는 이번 2학기부터 이민 2세 및 외국인 대상 입학 장학금 제도까지 신설했을 정도다.

<모교 홍보부>

'Brain Network Workshop'

## "11월6일 많은 참여를..."

서울대 동문들은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대학에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교수진의 강의와 지도를 받은 덕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고 있는 동문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서울대 동문들은 미국에서 한국 어느 대학 동문들보다도 많이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여러 대학과 연구소, 정부기관, 또는 Private sector의 직장에서 교수, 연구원, 또는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 한국경제학자협회의 명단을 보면 80%이상이 서울대 출신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괄목할 만한 역할과 공헌을 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에 있는 서울대 동문 전문가들의 Network 을 만들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모교와 나아가서는 모국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공헌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합니다.

본 동창회는 모교의 이장무 전 총장의 조언과 장려를 받아서 정치와 경제 두 분야의 전문가 Network 을 구성하고 그 첫 행사로서 오는 11월 6일에 모교 '서울대 미주 센터(Snu America Center)' 가 있는 LA 에서 Workshop 을 가질 예정입니다.

고병철 교수의 주도로 계획된 이번 Workshop 은 국제정치 연구의 권위자인 이채진 교수의 사회로 강명구·박한식·김한교·유의영 교수 등이 한국정치의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50여차의 방문으로 직접 목격한 북한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사상과 제도하에 살아오며 생긴 남북간의 문화적 차이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등의 전문적 해설을 듣고 남북통일의 전망을 분석하게 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Rochester 대학 교수와 연세대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장용성 박사의 사회로 장세문·윤봉준·김선웅·정진길 교수 등이 남북한 무역, 남북 통합을 대비한 경제제도 정비, 한국의 교육및 R & D 정책, 체제 전환국의 환율정책이 남북한에 시사하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고병철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번 Workshop은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로서 재정적 제약 때문에 극소수의 Network 참가자만 초청할 수 있어서 훌륭한 업적을 가진 다른 참가자들에게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고견과 Insight 를 경청할 수 있도록 Workshop 을 조직해보겠습니다.

끝으로 LA 지역에 거주하시는 많은 동문들이 이번 행사에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주 총동창회장 송순명>


PRSRT STD
NON_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I 1068


특집 · 특별기획 한글날기념, KAIST한글공학연구소/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3·8면

10□□ 1~2□:Aug_Rev 2010-10-12 □□ 2:34 Page 2



종 합 | 미주 • 모교 • 동문소식

## 모교 LA미주센터 자문위원 위촉

### 김은종 회장 비롯해 총 4명

역사 토론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동창회 이사회 모임 등 동문회 행사에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호평을 받고 있는 서울대 미주센터가 남가주 동문 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동문과 더욱 활발한 교류를 기약했다.

서울대는 지난 달 9일 김은종 남가주 동창회장(상대 59), 김지영(사대 69), 강신용(사대 73), 이경희(독문 83) 동문을 모교 미주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동문과 모교와의 가교 역할을 주문했다.

<Acropolistimes.com>

↑오른쪽부터 김은종 남가주 동창회장, 김지영·강신용·이경희 동문 자문위원

강화영 동문

## 데일리 시카고 시장으로부터 감사장

강화영(문리 50,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동문이 지난 달 14일 시카고 컬쳐럴 센터에서 열린 추석 리셉션에서 리처드 데일리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리처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한인들의 명절인 추석을 축하한다. 한인커뮤니티는 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시카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부산과 서울에서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살필 것" 이라고 말했다.

동문 장기남(문리 62) 한인회장은 "올해 퇴임하는 데일리 시장이 한인사회를 배려해 매년 추석 리셉션을 개최해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날 데일리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사람은 강화영 동문 외에도 김순자, 손예숙, 염애희 씨 등이다.

### "동창회관 건립모금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이미 지난 9월호 2면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미주 총동창회에서도 모교 동창회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건립에 착수한 모교 동창회관은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포 중심가에 지상 19층 지하 6층으로 동창회관 건물로는 세계 으뜸가는 규모입니다. 동창회 사무실 외 임대 수익금은 모두 모교발전에 쓰이게 됩니다. 18층 '명예의 전당' 에는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져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구히 자랑스런 일이 될 것입니다. 11월 말까지인 이번 건립기금 모금에 미주 동문 여러 분들께서도 부디 적극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주 총동창회장 송순영>

*동창회관 건립기금 보내실 곳
SNU Alumni Asso.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금액과 함께 출신 단과대학, 입학년도,연락처 명기 바람

테너 이용훈 동문

## 시카고서 자메이카 선교지원 콘서트

지난 9월부터 시카고 시빅 오페라 카르멘 주연을 맡은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 동문(사진 오른쪽)이 시카고 한인사회에 사랑과 희망의 노래를 전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KAFHI•회장 김형균 목사) 주도로 지난 9월18일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이 동문은 행사장에 가득한 동포들에게 세계 정상급 테너의 주옥같은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이번 음악회는 자메이카 빈민촌 킹스톤에서 어린이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조미선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음악회로 무료 입장과 함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오로지 헌금으로만 기금을 모았다.

이날 음악회는 1부 테너 이용훈의 아리아에 이어 소프라노 김문희와 함께 무대에 올라 뛰어난 화음으로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반주는 피아니스트 이소정(음대 84, 저드슨대 음악학부 부교수, 사진 왼쪽)동문이 맡았다.

2부는 이용훈 동문의 찬양과 간증, 선교를 위한 헌금 모금 및 기도가 이어졌다.

관중들의 연이은 앙코르 요청에 이 동문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로 무대를 마감했다.

이 동문은 "이 음악회는 한 사람의 노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러 온 것" 이라며 "노래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하는 지 느껴보기 바란다" 고 말했다.

임이섭 동문

## 한인 첫 시카고 '유니티 어워드' 수상

임이섭(미대 54) 동문이 지난 9월 23일 평화 홍보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시카고 시청 인권국과 인권정책 위원회가 수여하는 '유니티 어워드' 를 수상했다.

시카고 인권 정책위원회는 이날 라이트 칼리지에서 9월 평화의 달을 기념하는 유니티 디너 행사에서 임 동문의 예술·미술분야 활동을 치하, '유니티 어워드' 를 시상한 것이다.

'유니티 어워드' 는 매년 시카고 지역에서 교육·종교·법·비즈니스·의학·정치·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동문은 9.11 테러 직후 데일리 센터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를 주제로 전시회를 펼쳤고 평화 미술관과 여러 공공전시장에서도 미술작품으로 평화와 화해의 비전을 강조해 왔다.

임 동문은 내년 9.11 테러 1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미술 전시회를 뉴욕과 워싱턴 등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논설위원: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남채홍(NY) 백순(DC) 오강남(BC)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혜(SF) 장석정(CH) 정홍택(PA) 한창섭(NY)
편집위원 :조민규(문) 조봉완(법) 조대현(공) 구경회(의) 이승자(사) 정호(공) 홍혜례(사)

### 이번 호의 차례

3.KAIST한글공학연구소/이 모든것을..
4~7.미주 동문 동정
8.명성황후 시해/공정한 사회는 법치사회
9.아시안 노벨문학상<3>/전통문화
10.예술가곡을 찾아서<1>예술가곡의 배경
11.Uncle Tom / 동문 시감상
12.서울대 발전기금 소식
13.예일대 연수기
14.건국 소용돌이 속에서의 새터민
15.세계명화 지상감상<로댕>
16~18.지역소식<샌디•가주•워싱턴•시카고>
19.발틱해 북유럽과 러시아 기행
20.고국 동문 신간안내
21.고국동문 동정
22.고국동문동정
23.동창회비명록
24~29.동문 업소록
30.동창회 조직,각 지부 회장단
31~32.광고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1



특 집 한글 • Life • 시

# KAIST한글공학연구소 개원을 축하하며

신부용(공대 64년 졸)
KAIST 문화과학대학 한글공학 연구소장

10월9일은 '한글날' 이다.

그런데 한글이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니, 세계 최고의 문자니, 하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니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글에 대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가치를 발휘하도록, 그래서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도록 하는 것이리라. 한글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이제는 감을 잡았다.

한글을 외국에 가지고 가서 "이거 좋으니 써봐라!" 하는 작업은 충분히 했다.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이 쫓아와서 좀 쓰게 해 달라고 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글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과학적 가치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학이다. 그렇다면 한글의 이치를 이용해 기술로 발전시키는 일을 '한글공학'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공학에서 제일 먼저 해볼 만한 일은 한글을 컴퓨터와 접목시켜 함께 발전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컴퓨터는 작아질 대로 작아져 이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

재미난 것은 그 컴퓨터 속에 한글을 넣으면 한글이 아니라 컴퓨터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창 인기를 끄는 아이 폰을 뜯어보자.

온갖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수많은 매니아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휴대폰을 앞서가게 만든 것은 소위 '쿼티(Qwerty)' 라고 하는 통상 규격의 로마자 자판을 장착한 것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쿼티' 의 가능성은 캐나다의 블랙베리가 보여 줬고 이를 애플사가 활용한 것이다. 다른 얘기지만 캐나다는 원천기술을 발전시켜 미국에 뺏기는 전통이 있다.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 Arrow는 볼트 너트까지 미국의 NASA로 넘어갔다 하며 한발 앞선 기술이라고 하는 Candu 원자로는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쿼티 자판의 매력은 두 말 할 것 없이 문자입력 기능이다. 12개의 단추로 된 휴대폰으로는 문자입력이 몹시 불편했는데 35개 내외의 단추를 씀으로 해서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절대 아니다.

영어 알파벳은 26자이므로 12개 단추보다는 당연히 35개 단추를 쓰는 것이 편하겠지만 이는 영어에만 해당하는 일이다.

한글은 12개 단추만 갖고도 정규 PC 자판과 맞먹는 속도로 입력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아마 외국의 문맹율보다 낮을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 즉 한글은 휴대폰으로도 수월하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35개나 되는 단추를 빽빽이 늘어놓고 그 중에서 찾아 쓰느라고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전 세계 방방곡곡에 휴대폰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공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왜 휴대폰에 한글을 깔아 전 세계에 수출하고 한글로 그네들 말을 입력하도록 하지 않을까?

중국·일본·아랍계통 등 로마자(字)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는 어차피 자기 문자를 직접 입력하지 못하므로 로마자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휴대폰보다는 스마트 폰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로마자를 쓰지 않고 한글을 쓴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제3국에 한글 자판을 보급하려는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알만하다.

"로마자는 이들이 이미 다 아는 글자가 아니냐? 어떻게 이들에게 한글을 새로 배워 쓰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글은 너무나도 배우기 쉽다는 사실이다. 책방에 가서 한글 배우는 책을 찾아보면 2세용, 3세용부터 시작 된다. 3~4 세가 되면 다 배워 버린다는 얘기다.

필자는 한글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전연 모르는 선천성 시각 장애인에게 한글을 배워준 경험이 있다.

그 뒤 정확히 45분 만에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한글을 새로 배우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은 문제는 배워서 무엇에 쓰느냐는 것이다.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한글 공학의 일이다.

최근 KAIST 는 필자의 제언에 따라 문화과학대학에 한글공학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리고는 10월 6일 한글공학연구소 개원을 기념해 제1회 연구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진용옥 교수가 '한글 정보공학의 성립과 산업화 전망', 신부용 교수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입출력 방법 개발' 을 테마로 주제발표를 했다.

연구소의 첫 연구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쉽게 쓸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글자를 쉽게 입력하도록 해 주려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첫째는 보지 않고도 문자 입력이 어렵지 않아야 하며 둘째 철자법에 틀리게 입력해도 자동적으로 교정해 출력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차카게 살자' 라고 입력해도 '착하게 살자' 로 출력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연장하면 미국의 시각 장애인이 '심포지움' 이라고 입력하면 'symposium' 이라고 출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미국의 시각 장애인들은 정상인들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철자법을 쓰게 될 것이며 문맹자들은 물론 철자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단말기를 사러 나설 것이 아닌가?

<필자 소개> 1964년 서울공대 토목공학과 졸업. 캐나다 토론토대 박사. 캐나다 맥매스터대 Lecturer. KIST 교통연구부장. 교통개발연구원장.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장. KAIST 건설·환경공학과 교통그룹 교수. 현재 KAIST 문화과학대학 교수 겸 한글공학연구소장.

## 등문 시 감상

### 시간의 얼굴

이원로(의학 56)
인제대 총장·시인

빛살이 날개를 기울인다
주름진 시간의 얼굴에
긴 그림자가 내리는 때다

흐느낌의 뒷자락들이
깨진 틈으로 흔들린다

꽃비 내리던 바람이
단풍잎을 불어 날린다

흘날리는 흰 머리 사이로
가야 할 길이 숨어 굽이친다

놀라운 빛이 인도하는
평강의 여장이리라

처음처럼 다음이 열린다고
미소짓는 눈동자는 이미
영겁의 기쁨을 꿰뚫었는데

돌아보고 바라보는 가슴에는
어찌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가

#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백순(법대 58)
미연방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최근 기독교서적 베스트셀러 중 한 권을 읽고 기독교에 대해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침례신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6세의 젊은 나이에 앨라배마 주 버밍햄에 위치한 4천300명 성도의 대형 교회인 부룩힐스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돼 목회중인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 목사가 금년 5월에 출간한 책입니다.

책 제목은 '근본적인 것: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당신의 믿음을 되찾기(Radical: Taking Back Your Faith from the American Dream)' 로 후기 현대주의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교회의 교인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기독교신앙을 새롭게 점검케 해 주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적인 미국의 꿈을 성취하고자 이민 온 나를 포함한 미주 한인기독인들, 그리고 교회성장과 대형교회를 열심히 지향하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들에게 근본적인 참된 신앙의 모습을 다짐하게 해 주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플랫 목사는 이 책에서 미 기독교의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대 기독인들의 신앙근본을 깨우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문제는 미국의 꿈(American Dream)에 대한 앞뒤가 바뀐 신앙자세를 미 그리스도들이 갖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플랫 목사는 풍부한 자원과 계속된 번영 속에서 미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미래세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메리칸 드림' 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맘몬, 선과 풍요, 영성과 물질 등 팽팽한 긴장관계를 동시에 유지해 나가는 미국의 꿈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개발과 개인성장을 강조하는 미국의 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주 한인 그리스도인들도 플랫 목사가 이 책에서 지적한 기독교적인 미국의 꿈을 간직하고 성취하며 추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었습니다.

"….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과 물질을 모두 다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와 번영과 물질의 모든 것이 다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서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과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하는 것을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둘을 같은 우선순위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더 나아가 앞뒤가 바뀐 우선순위의 역순위를 추구하며 미국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폴랫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무능을 드러냄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둘째문제는 대형교회(Megachurch)를 추구하는 경향(비전)을 미국의 교회가 갖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플랫 목사는 미국의 대형교회가 기독교 시장의 점유율을 높고 경쟁하는 기업처럼 각종사회센터 시설과 유아보호 프로그램과 일류여흥을 제공하는 소비자기독교(Consumer Christianity)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건축 예산이 교회사역예산을 압도하고, 예수님은 단순히 '한 친절한 교외의 멋쟁이' 로 둔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플랫목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성전에 모여 찬송하고 손을 높이 들어 경배할 때 성경의 예수님을 실제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라고.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는 소비자 기독교를 추구하는 기업적 대형교회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 라고 그리스도인이 세워 섬겨야 할 교회의 근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이 예수님 자신이든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는 기독교 시장점유를 쟁취하는 기업교회도 아니고 소비자 기독교를 추구하는 장터마당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이민와 교회를 세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주 한인기독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기업 같고 장터마당 같은 대형교회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믿음의 근본을 재점검하고, 다짐하고, 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2



동문 동정 | 활동 • 출판 • 연주회

시카고 한인회장 장기남 동문

## 자매도시 부산방문, 발전방향 논의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시카고 한인회장 장기남 동문(문리 62)이 시카고와 자매도시인 부산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과 면담했다.

장기남 회장은 지난 달 8일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시장과 만나 양 도시간 우호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손예숙 시카고 한인회 이사가 함께 한 이날 면담에서 장 회장은 시카고 한인사회의 현황과 시카고-부산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9월 21일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의 첫 부산 방문을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기남 시카고 한인회장(오른쪽)이 허남식 부산시장(가운데)과 만나 자매도시간 발전방향 등에 관해 논의한 뒤 함께 촬영했다.왼쪽은 손예숙 시카고 한인회 이사.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출판기념 행사에서 이영묵(맨 왼쪽)동문이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저서에 서명을 해주고 있다.

워싱턴 전 문인회장 이영묵 동문

## '워싱턴에서 살며 생각하며' 출간

작가 이영묵(공대 59) 동문이 신간 수필집 '워싱턴에서 살며 생각하며' 를 출간, 지난 9월 이를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동문은 소설 '워싱턴의 도박꾼', '워싱턴 달동네'로 미주 동포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타이슨스 코너 우래옥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인삿말이나 축사, 서평 등의 형식을 없애는 대신 작가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일일카페로 진행됐다.

이 동문은 "워싱턴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데 의미를 둔다"며 "일부의 비평가가 아닌, 일반 독자들로부터 솔직한 평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 문인회장을 지낸 이 동문은 지난 2003년부터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등에 게재해 온 칼럼들을 모아 총 5개의 장으로 나눠 책으로 엮었다.

각 장 마다 당시의 사회 현상이나 국제 정치, 경제 문제, 한인사회 현안 등이 담겨있어 흥미롭다.

이 책은 한국 영풍, 교보문고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워싱턴 지역에선 알라딘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 동문은 1979년 미국에 이민와 워싱턴 문인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피아니스트 조이스 양 동문

## 애틀랜타 라즈웰 아트센터서 독주회

조이스 양(사진) 동문은 한국의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미주 지역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

조이스 양 동문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지난 9월 라즈웰 컬처 아트센터(950 Forest St, Roswell, GA 30075-4527)에서 열렸다.

조이스 양 동문은 '2005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쿨대회' 은메달리스트로 워싱턴포스트지, 뉴욕 타임즈 등이 "시적, 감각적인 선율의 아티스트"로 극찬한 바 있는피아니스트다.

이번 독주회에서 조이스 양 동문은 쇼팡과 드뷔시, 리스트가 작곡한 감미로운 피아노곡을 연주해 청중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이번 독주회는 애틀랜타 쇼팡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것이다.

조이스 양 동문은 모교 음악대학 졸업 후 뉴욕 줄리어드 스쿨에서 수학했다.

그 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샌프랜시스코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등의 유명 오케스트라와 전 세계 공연장에서 협연을 해 왔다.

올해 조이스 양 동문은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를 받았다.

CJ그룹 회장 손경식 동문

## 시카고 상의와 경제협력 MOU체결

고국 CJ그룹 회장 손경식 동문이 한국 경제 대표 18명과 함께 시카고를 방문, 지난 9월 7일 시카고 상의와 경제협력 MOU를 체결했다.

손경식 동문 일행은 이번 방문에서 일리노이와 미주리 주 정계인사들을 만나 한미 FTA 비준을 홍보하고 미국 진출 희망 업체들을 도왔다.

손 동문은 한국의 무역 파트너로써의 시카고 역할에 큰 비중을 뒀다.

손 동문은 "시카고를 MOU 도시로 택한 것은 한국과 비즈니스 파트너로써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카고-한국간 무역규모는 86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무역량으로 따지면 미국은 한국의 3번째, 한국은 미국의 7번째로 큰 파트너 국이다. 또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 교류량이 50억 달러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시카고 업체의 활약도 돋보인다.

손 동문은 "시카고에는 삼성, CJ, LG 등 한국 출신 업체들이 진출해 있고 한국에는 모토롤라, 벡스터, 맥도날드 등 시카고 지역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동문은 또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큰 도움을 줬다. 지금은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 동맹국이다"면서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는 올해 FTA 비준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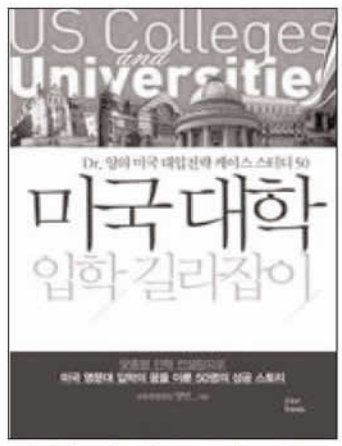
아울러 이번 시카고-대한 상의 MOU가 한-미 FTA 비준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했다.

손 동문은 "시카고는 기계와 화학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해있고 환경과 바이오 산업도 앞서가고 있다. 시카고가 FTA 비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시카고와 서울 상의의 MOU는 시의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손경식(왼쪽에서 두번째) 대한상의 회장과 제럴드 로퍼 시카고 상의 회장(오른쪽)이 허철 총영사(왼쪽)와 리처드 데일리 시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MOU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양민 동문 LA중앙일보 기획연재

## '미국 대학입학 길라잡이' 출간




양민(공대 77) 동문이 LA의 중앙일보 교육섹션에 연재 중인 'Dr.양의 대입전략 어드바이스'가 단행본으로 제작돼 칼리지 페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국대학 입학 길라잡이(사진)'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출판된 이 책엔 다양한 배경의 중고생 50명에 관한 실제 상담 사례와 자세한 미국 대학 입시 정보가 수록돼 있다.

특히 각 학년별 학과목 선택, 목표 대학에 맞춰 수립해야 할 학습 계획, 성적관리 방법, 학과외 활동 등에 관한 정보가 케이스별로 정리돼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 준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학입학 지원 절차와 사전에 알아 두어야 할 각 대학별 종류와 특징까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낯설어 하는 한인 학부모들은 물론 실제로 수험생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에서 모교 졸업후 USC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양민 동문은 그동안 22년 경력의 대학 진학 전문 컨설턴트로 잘 알려져 있다.

양 동문은 현재 대입전문 컨설팅업체 '유에스 에듀콘' 대표를 맡고 있다.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3



## 동문 동정 | 강연 • 출판 • 전시회 • 공연

한국화의 대가, 동문 이열모 교수

### '동양미술에로의 산책' 강연회

한국화의 대가로 꼽히는 창운 이열모(사진) 동문 교수의 동양미술 강의가 지난 9월 LA의 엔드류샤이어 갤러리(관장 메이 정)에서 열렸다.

'동양미술에로의 산책' 이라는 제목의 이 강의는 이 갤러리의 예술 아카데미 회원들을 위해 매달 열리는 '아트홀릭' (Artholic)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나 회원들만 듣기는 아까운 클래스라는 여론에 따라 일반에 개방됐다.

이열모 동문은 현재 한국화 분야에서 가장 비중있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특히 경쾌한 필선과 깊이 있는 먹색, 활달한 화풍을 가진 실경산수화풍의 그림으로 그만의 독자적인 경지를 이룩했다고 평가된다.

모교 미대와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고 조지 워싱턴 대학, 하워드 대학원에서 회화를 공부했으며 경희대 미술교육과 교수(1969~1984), 성균관대 사범대학 학장 및 교육대학원장(1992~1994)을 역임했다. 수년전 LA로 이주, 2008년 비전 아트홀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한인타운 내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다.

메이 정 관장은 "미국에서 제대로 된 동양미술 강의는 들을 곳이 거의 없다"며 "좋은 강사를 모시게 돼 관심 있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 터프 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이태영 동문(왼쪽)이 자신의 저서에 서명을 해 참석자들에게 주고 있다.

동문 이태영 박사

### '록펠러처럼 자산관리하라' 출간

동문 이태영(법대 60) 박사가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대해 풀어 쓴 '록펠러처럼 자산관리하라(은행나무 출판사)' 를 최근 출간해 이를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지난 9월 메릴랜드 터프밸리 리조트에서 열렸다.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자산관리에 관한 책이다. 상당한 자산을 가진 집안과 앞으로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집안, 두 독자층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태영 동문은 "제대로 된 자산관리를 위해선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며 "유명 자산가인 록펠러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제도적으로 자산관리를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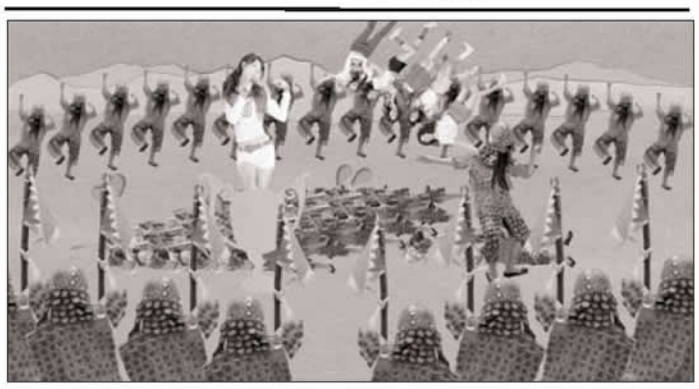
이태영 동문은 모교 법대와 인디애나 대학원(경제경영학 박사)을 졸업했다.

이후 메릴랜드 주립대(솔즈베리) 부교수 및 경제학과와 마케팅학과장을 역임했다.

이 동문은 또 한국 롯데그룹의 운영본부 국제업무 및 금융담당 이사를 역임했다.

그 뒤 볼티모어시에 투자자문 및 재산관리 회사인 PIC IPM을 설립, 현재 대표 이사를 맡고 있다.

이 동문은 미주 주류사회에서도 투자에 대한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비디오 작가 임장순 동문

### '시카고 미대및 대학원 작가 5인전 참여

비디오 작가 임장순 동문이 뉴욕의 많은 작가를 배출한 브루클린의 사우스 퍼스트 갤러리에서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18일까지 촉망받는 시카고 미대 및 대학원 졸업 작가 5인전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시카고 미대의 교수이자 첼시의 안드레아 로젠 갤러리의 전속작가인 호세 레르마가 기획한 것이다.

임 동문은 이 전시회에서 파티마 하이더, 조나단 가드너, 티모시 벅스톰, 사만타 비트만과 함께 참여, 비디오와 평면 작업을 선보인다.

임 동문은 동양의 옛 군사들에 대한 팬터지를 작업으로 표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TV 드라마나 영화, 소설을 보면서 접했던 전쟁의 모습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로 재현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임 동문이 직접 갑옷을 입고 포즈를 취해가면서 사진찍은 이미지들을 작업에 넣음으로써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비디오, 회화, 콜라주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임 동문은 모교 미대와 대학원 동양화과를 나와 시카고 미대 대학원에서 회화 및 드로잉을 전공한 다음 다수의 전시회를 가졌다.

특히 임 동문은 2010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선정 작가이기도 하다.

KT아카데미 원장 김광태 동문

### '리더십 프렙' 워싱턴 파트너 선정돼

김광태 동문(사진 왼쪽)이 운영중인 KT아카데미가 중앙일보 교육연구소와 워싱턴 중앙일보가 공동 추진하는 리더십 프렙(Leadership Prep) 프로그램의 워싱턴 지역 파트너로 선정됐다. 두 기관은 지난 9월 프로그램 협력 조인식을 갖고 한인 차세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나갈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을 선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KT아카데미는 중앙일보가 전국 공통 기본 커리큘럼을 통해 리더십 프렙 신청자를 받아 위탁 교육을 맡는다. 중앙일보의 리더십 프렙은 자체 개발한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미주 네트워크의 교육 전문가들이 개발한 신개념 교재를 이용해 토론식 학습방법으로 진행된다. 또 철저한 학생 관리시스템을 통해 월별, 학기별 평가 리포트를 제공하게 된다.

KT아카데미는 명문 학교들이 포진해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유명한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자리잡아 5년째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주로 SAT와 AP 등이 전문이지만 김 동문이 평소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아 토론 수업과 신문읽기 수업 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김 동문은 모교 외교학과 학부 및 대학원을 나와 한국에서 해군사관학교(교수)와 국방연구원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96년 존스 홉킨스 대학 고등국제관계대학원(SSIS)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크로스 오버 테너 박종호 동문

### 미 동부지역 순회 콘서트 가져

모교 음대 성악과 재학 시절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동문과 함께 뛰어난 기대주로 주목 받던 크로스오버 테너 박종호(사진) 동문이 워싱턴 공연을 가졌다.

박종호 동문은 지난 9월부터 10월 3일까지 미동부 지역 순회 콘서트를 개최하는 가운데 9월 26일 워싱턴 페어팩스 소재 온마을 장로교회(채홍석 목사)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것이다.

'The Story-나의 사랑, 나의 가족 이야기' 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CCM 가수를 넘어 대중화를 위한 시도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한국에서 진행된 바 있는 콘서트는 최첨단 멀티미디어가 접목된 뮤지컬 버전의 스토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당초 기대했던 대로 기존의 공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장르로 워싱턴에서도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을 주었다.

박 동문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스펠 음악계에서는 거장으로 손꼽힌다. 모교 성악과 재학시절부터 최고의 기대주로 주목받았던 그는 신앙을 가진 후 CCM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이후 많은 앨범을 제작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첫 앨범 '살아계신 하나님' 이후 지금까지 총 60만장의 판매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박 동문은 그간 대부분 자신의 신앙을 불러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족을 소재로 '당신만은 못해요' , '존재의 이유' , '사랑을 위하여' 등 대중가요를 곁들인 참신한 무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동문 피터 리 박사

### "AP자신있게 들으세요"

동문 피터 리 박사가 지난 9월 워싱턴 비엔나 도서관에서 열린 TJ(토마스 제퍼슨 과학고) 학부모 세미나에서 강의했다.

피터 리 동문은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면 AP 과목을 자신있게 수강하라" 면서 "학부모들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라" 고 당부했다.

이 동문은 전국 학생들의 과목별 AP 점수(%) 및 AP 내셔널 스콜라 등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모든 과목 수강생의 30% 정도는 4~5점을 받는다" 며 "특히 아시안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뿐 만 아니라 전 과목에 있어 월등한 편" 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AP 과목에 대 한 이해와 공부 방법 등이 자세히 소개됐으며,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 동문은 모교를 졸업,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도미해 지난 20년간 TJ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AP 화학과 생물, SAT 등을 지도해 왔다.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4



동문 동정 | 인물•부임•전시회

글로벌 기업 꿈꾸는 CEO 노범석 동문

## "패션 분야의 아마존 닷컴 역할할터"

노범석(경제) 동문은 미주 한인 의류 브랜드의 이른바 '잘나가는 CEO'로 이름나 있다.

그가 "감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이면서 한인들이 확실히 자리잡고 있고 주류사회와 연관성도 높은 의류분야를 택했습니다. 패션분야에서 아마존닷컴과 같은 역할을 꿈꾸고 있습니다." 고 말한다.

LA 한인업체들이 만든 의류로 지난 3월 서울 명동 중심가의 패션몰 눈스퀘어에 브랜드 편집매장 '터치(T.O.U.C.H)'를 오픈했고 7월 말에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목동점 삼성동 코엑스점까지 진출해 화제를 모은 동문 노범석 대표(36)는 "매장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터치'는 LA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 브랜드만 취급하고 있어 앞으로 미주 한인 의류브랜드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에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국과 한인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싶었다"는 노 동문은 "LA 한인 의류업계와 좋은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류사업에만 만족하지 않고 지난 달 중순에는 참존화장품을 파트너로 자체 브랜드(아리얼)의 뷰티 관련 제품을 출시했다. 명동에 1호점이 오픈했고 주요 대학가에 위치한 GS 왓슨 5개 지점에도 자리를 마련했다.

미국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B2B에 이어 B2C 사이트를 11월중 오픈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아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패션 및 뷰티와 관련 특화된 추천솔루션을 개발중이다.

노 동문은 "패션과 뷰티 IT 등 사업이 다각화된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의 사업" 이라며 "다 감성을 필요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고 강조했다.

'모임'의 출발은 온라인 사업이다.

2007년 12월 B2B 온라인 사이트 '모임닷넷(Moeim.net)'을 개설했고 이를 일반 소비자와도 연결하는 오프라인 B2C로 확장하고 있다.

노 동문은 "모임은 한국적인 고유어로 사람과 사람 인터넷을 통해 의미있는 공간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 설명했다.

모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 및 전략부문을 공부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에서 마케팅 이노베이션팀장을 지냈고 티켓링크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했다.

이같이 탄탄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12월 말 '모임'을 다음 해 7월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다.

"창업 이후 숨 돌릴틈 없이 달려 왔다" 는 노 동문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 이라며 "행동하는 열정, 지치지 않는 열정, 함께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기업을 향한 자신의 경영철학을 소개했다.

"앞으로 국가대표급 기업으로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모임은 한국이나 미국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사회와 커뮤니티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줄 수 있을 때 기업의 존재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온라인 의류업체로 출발한 '모임'은 오프라인 매장 확대 등을 통해 LA 한인 의류 브랜드의 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모임'의 동문 노범석 대표가 회사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성욱 동문 SF 부총영사 부임

## "한인사회 성장위해 지원할 것"

"지역 한인사회 발전과 한인단체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SF총영사관에 지난달 13일 부임한 동문 홍성욱(사진 왼쪽) 부총영사는 "북가주 한인 사회가 단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홍 부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새크라멘토, 몬트레이 등 북가주 4개지역 한인회가 서로 협력해 잘 운영되고 있고,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며 "총영사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홍 부총영사는 모교 인류학과를 나와 외무고시 26기로 외교부에 입부한 후 중국 대사관, 미얀마 대사관을 거쳐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사과장과 영사서비스 과장을 지냈다.

허태완 동문 LA 영사 부임

## "한인들에게 봉사하는 영사 될 것"

"한인들에게 봉사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LA지역 총영사관에 허태완(사진 오른쪽)동문이 영사로 발령받아 신임 최용진 부총영사와 함께 지난 9월 말경 부임했다.

허태완 영사는 최 총영사와 함께 정무분야와 대 언론 홍보분야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영사는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 뒤 외교통상부에 입문해 로스엔젤스에 오기 직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김은형 동문

## 문화원 7인 그룹전

김은형 동문을 비롯한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송수근) 2010 갤러리 코리아 전시공모 당선작가 7인전이 지난 9월 맨하탄 파크 애비뉴소재 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에서 열렸다.

'무의식 너머 의식(Conscious behind Unconscious)'을 주제로 24일까지 열린 전시 참여 작가는 김 동문 외에도 월터 가르시아, 옌 후아 리, 캐티아 플레이트, 이상용, 승인영, 이민수 작가 등이다.

이들은 의식 너머로 보이는 잠재의식, 아련한 기억, 어린 시절의 추억 등을 주제로 드로잉,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다.

김은형 동문은 잠재된 의식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발한 상상력과 탄탄한 드로잉 실력으로 그려냈다는 평이다.

김 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시카고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사진은 김은형(오른쪽) 동문을 비롯한 참여 작가들이 전시 첫날인 지난 9월 1일 오프닝 리셉션에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현주 동문 그룹전

## 코네티컷 웨스트포트와 뉴캐넌 실버마인 길드

코네티컷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문 정현주 작가의 유화 작품은 생명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 동문은 지난 9월 코네티컷 웨스트포트 아트 센터와 역시 코네티컷 뉴 캐넌 실버마인 길드 아트 센터에서 그룹전을 열었다.

이 전시회를 통해 꽃을 소재로 삶의 단편들을 라이프 사이클로 담아낸 추상 작품들을 선보였다.

꽃이 시들고 활짝 피기도 하는 현상에서 희망과 미래, 과거로의 기억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이다.

정 동문의 작품은 여러 겹으로 붓터치를 함으로써 환상적이면서도 빛의 느낌과 함께 생명의 신비로움 마저 느끼게 해준다.

모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정 동문은 서던 코네티컷 주립대학에서 미술 교육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정 동문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8차례의 개인전을 가졌다.

현재는 코네티컷 주 웨스트포트 아트 센터와 실버마인 아트 센터 등지에서 회원 작가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5



동문 동정 | 공연•방문•전시회•활동

이자람 동문 판소리

## 시카고 월드뮤직 페스티벌서 공연

한국의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구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자람 동문(사진 왼쪽)이 시카고에서 공연했다.

지난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2회 시카고 월드뮤직 페스티벌에서 현대 판소리 전문팀인 '판소리 프로젝트 자' 에 참석해 판소리 브레히트 '사천가' 를 선보인 것이다. 이 공연은 지난 9월 25일 시카고 다운타운의 현대미술 박물관에서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했다.

이자람 동문은 지난 1984년 4살 때 '내 이름 예술아' 로 데뷔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초연된 사천가는 2009년 10월 서울아트마켓 Pams choice에 선정되고 2010년 5월 폴란드 콘탁 국제연극제에 공식 초청돼 국내외에서 호평받은 작품이다.

사천이란 도시에 찾아온 세 신과 착하게 살던 순덕, 무자비한 사업가의 한심한 세태를 해학적으로 풀어놓은 작품이다. 특히 외모지상주의, 유학지상주의, 무한경쟁, 선을 강요하면서도 위선을 자행하는 모습 등이 현실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려졌다.

지난 2007년 독일 연극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 을 각색 판소리와 접목한 '브레히트 사천가' 를 초연한 이후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현대판 판소리 '브레히트 사천가' 는 판소리 선율과 장단에 베이스 기타와 타악기, 아프리카 젬베와 장구가 함께 어우러져 동양과 서양의 소리의 조화를 이루는 판소리와 뮤지컬이 융합된 형태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09년 10월 서울 아트마켓 팜스 초이스에 선정되고 2010년 5월에는 폴란드 콘탁 국제연극제에 공식 초청되는 등 국내외 무대에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공연팀은 2010년 7월 예술의 전당에서 '사천가 2010' 을 공연한 뒤 9월 시카고 월드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워싱턴 한미 페스티벌 참가, 2011년 3월 프랑스 국립민중극장과 파리시립극장의 기획공연 등을 통해 한국의 판소리를 전세계에 알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제12회 시카고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80명의 예술단이 참석해 10일간 30곳의 장소에서 펼쳐진 것이다.

서양화가 이정주 동문

## 'MK갤러리' 개관기념 17인 그룹전

워싱턴 지역에서 활동중인 서양화가 이정주 동문이 지난 9월 한인 미술가 9명이 포함된 17인 그룹전에 출품했다.

맥클린 소재 'MK 갤러리' 에서 시작된 이 전시회에는 이정주 동문 외에도 유미 호갠, 도예가 김은전, 금속공예가 김완진, 정은미 · 조진실 · 백정화 · 주미영 · 이수경 씨와 미국 작가들이 참가했다.

전시회에서 이들 작가들은 서양화 · 조각 · 도예 · 금속공예 · 아트 주얼리 등 다양한 장르의 근작 5~10점씩을 각각 선보였다.

이 정주 동문은 모교에서 미대 학부와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폴 발레리 대학에서 미술사, 조지 메이슨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그 뒤 2008년 로턴 예술센터 산하 워크하우스 아트 센터(Workhouse Arts Center)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워싱턴 한인 미술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금속공예가 김완진씨는 뉴욕 프랫 미대 조소과, 미시건 주 크랜브룩 미대학원 졸업했다.

그 뒤 메릴랜드 락빌 몽고메리 칼리지에 출강 중이며 워싱턴 한인 미술가협회(현 한미미술가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홍익대 미대에서 도예를 전공한 도예가 김은전씨는 워싱턴 한인미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5월 문화원 특별전을 비롯해서 코리안 아트 센터, 대가 갤러리, 조지 메이슨대 존슨 센터 전시회 등 다수의 전시회에 참가했다.

'MK갤러리' 는 총 1,000 스퀘어피트 규모로 두 개의 전시실로 구분돼 있다.

이번 전시회는 16일까지 계속됐다.

경기도 지사 김문수 동문

## 투자유치단장으로 미주 대도시 방문

동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투자유치단 단장을 맡아 지난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다.

경기도 투자유치단은 이 기간 시카고를 비롯해서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LA를 돌며 5개 현지 기업체들과 1억5천만 달러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7일 시카고를 찾은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윌리엄 노글로우스 캐봇사 사장과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지사가 시카고의 반도체 관련 업체와 1천만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김 지사는 오로라의 캐봇 일렉트로닉스 본사를 찾아 이 회사 윌리엄 노글로우스 사장과 투자협력에 관한 MOU(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투자단과 시카고코리아비즈니스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캐봇사는 경기도 평택의 오성산업단지에 3천평 크기의 제조•연구시설을 설립한다. 1천만 달러 규모로 100명의 신규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투자다. 전세계에 직원이 925명인 캐봇사는 반도체용 무기화학물 및 패드 생산 업체로 관련 분야에서 세계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 캐봇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무기 화합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기도에 투자를 결정했다.

양해각서 체결후 김 지사는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재료업체가 경기도에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됐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고 의의를 설명했다.

노글로우스 사장도 "한국은 반도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앞으로 한국과의 거래가 더욱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시카고에 도착해 동문 장기남 한인회장과 이시우 평통 회장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허철 총영사 등 40여명과 함께 동포 간담회도 가졌다. 김 지사는 1박2일의 시카고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떠났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가 윌리엄 노글로우스 캐봇사 사장과 각서를 보여주고 있다.

건축가 한선정 동문

## 사업 프로젝트 대폭 넓히느라 분주

LA의 건축가 부부로 잘 알려진 한선정(사진 오른쪽)동문이 부군 건축가 이웅범씨와 함께 운영하는 'PQNK 건축사무소' 가 최근 종합 건축사무소로 유훈 · 에드원 리 등 두명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사무실을 한인타운 윌셔길로 이전했다.

중앙일보 문화센터에서 '알기 쉬운 건축강좌' 로 한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건축 바람을 일으킨 한 동문은 모교 건축학과 학부 4년, 동대학원 2년, 그리고 UC 버클리 대학원에서 건축대학원 과정을 2년 더 공부하는 등 건축의 '엘리트코스' 를 이수했다. 한국에서 여러 건축 설계 공모전에서 수상한 한 동문은 더 넓은 세상에서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 2000년 미국에 와 버클리 대학원 졸업 후 손학식 건축사무소(Hak Sik Son Architect)와 스타인버그 건축사무소 (Steinberg Architects), 드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De Stefano & Partners) 등지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설계와 디자인에서부터 구조 기술 시공 기술 등 건축에 관한 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중인 것이다.

한 동문은 "건축은 종합 예술 공학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 분야의 조율이 필요하다. 창조적 디자인 외에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학과 꼼꼼한 시공 기술 및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건축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해 일궈가는 PQNK의 통합 건축 철학을 강조한다.

PQNK 건축사무소는 인테리어부터 주택 상업 건물은 물론 공공건물과 마스터플랜까지 아우르는 계속 이어지는 프로젝트로 불황을 모르고 있다.

## 조희정 동문 개인전

설치작가 조희정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9월15~25일까지 뉴욕 맨허턴 차샤마 타임스 스퀘어 갤러리에서 열렸다.

조 동문은 '우리가 사는 집' 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건물을 소재로 한 설치작을 보여주었다.

조 동문은 모교 미대 조각과를 졸업,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 메이슨 그로스 아트 스쿨에서 비주얼 아트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 알재단 현대미술공모전 당선작가다.

김호연 동문 한국귀국

뉴욕 지역에서 거주하던 김호연(의대 46) 동문이 미주 생활을 접고 한국의 서울로 영구귀국했다.

당분간 연락이 가능한 e메일은 drhykim@hotmail.com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6



특 집 | 인류역사적 만행, 일제의 대한제국 국모(國母)시해

#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역사적 의미

조봉완(법대 53, Ph.D)

매년 10월이 되면, 한 민족은 잊어서는 안될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인 서기 1895년 10월 8일에 일어난 일이다.

그 날 새벽에, 당시의 국모였던 조선 왕조 고종의 왕비인 민중전이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시해 100주년 이후로 그에 대한 역사소설은 물론이고, 영화, TV 장편 드라마, 뮤지컬 등을 통해 상당히 알려져 있어 아문 상처를 다시 여는 듯한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지면을 채우려 한다.

민 중전의 살인마들은 여러 요소를 합친 무리로 조선에 파견됐던 일제 관리, 군인, 낭인(방랑하던 일본 사무라이)과 우장춘의 선조 외 조선인 친일파들이었다.

그들은 민 중전의 정적인 대원군을 앞세워 경복궁에 침입해 "여우사냥 왔다" 라고 외치며 경복궁 경비대를 물리치고, 궁궐 깊숙히 있는 중전의 침전인 건청궁에 쳐들어갔다. 그들은 중전을 수종들던 배은망덕한 일본태생 몸종을 앞세워 민중전을 찾았으나 궁녀로 가장한 중전을 쉽게 찾을 수 없어 궁녀마다 머리채를 잡아 끄집어 내어 하나 하나 죽였다.

마침내 일본인 종이 중전을 지적하자, 중전을 경비하던 이경직 장군의 양팔을 순식간에 베어 쓰러트리고 중전의 머리채를 잡아채 앞 정원에 던졌다.

일본군 몇이 넘어진 중전을 둘러싸 장화 발로 짓밟고, 시무라이 검으로 중전의 옥체 사방을 찌르고, 흰 호청으로 둘둘 마른 후 건청궁 소나무 후원에 끌고 가, 마지막 숨도 거두지 않은 중전에게 석유를 뿌린후 불을 질러버렸다. 증거를 숨기기 위한 만행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초가을 어두운 새벽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민 중전은 당시 혈기왕성하고 활동 성기의 45세였다.

한편, 고종과 왕세자 순종은 대원군의 엄한 시선과 무장한 일본군의 감시하에 연금되고 있었다. 대원군은 네번째로 섭정자리로 돌아 왔으나, 이번에는 민중전을 제거한 것 외에는 자신 의 심산대로 되지 않고, 일본인들에게 이용만 당했으며 일제 지배하의 사실상 허수아비 가 되고 말았다.

아무도 민 중전의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왕과 왕자는 중전이 1882년 임오군란 때처럼 성공적으로 도주했기만 조용히 빌었을 뿐이다. 그후 수일이 지난 후에야 당시 궐 안에 있었던 외국인 고문들, 미 군인 다이(Gen. Dye) 장군과, 러시아인 사바틴 (Sabatin)들의 발언으로 중전이 시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확실한 것은 몇 달 후에야 알려졌다.

고종은 자신과 왕자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일본군이 밀폐한 궁을 외국인의 도움으로 빠져나가 아관 파천을 실행해 러시아 공관에서 거주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일본제국의 세력이 몇년 동안 좌절됐던 것이다.

1년 반 후 환궁한 고종은 '대한 제국' 이라 국호를 바꾸고 왕을 황제, 세자를 황태자라 부르게 하고, 시해당한 중전에게 '명성황후' 라는 칭호를 하사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표현하기 어렵도록 잔인했고, 왕비로서 능멸을 당한 죽음이었으며, 동시에 온 나라가 모욕을 당한 것이다.

이 만행은 당지에 파견됐던 일제 관인들의 단독적인 만행이 아니고, 일본 최고 정치인 이토히로부미 수상의 명령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려 했다는 것이며 그들의 야심의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 민중전이라 간주했던 것이다.

명성황후는 한인 여성의 끈기 있는 모성애, 한 민족의 현명함, 자주 독립성, 자부심, 또 민족 애국심의 상징이며, 그의 시해는 한반도 전체 거주민에게 깊이 박힌 한이며 풀어지지 않는 원한이다.

무엇보다 그의 죽음은 한반도에서의 일본제국 세력 상승의 첫 단계였다.

명성 황후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다. 그를 성인화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를 괴물처럼, 또는 천하에 유일무이한 악당으로 몰아내는 편견을 가진 사람도 허다하다.

첫번째 생각은 배타적인 민족, 애국주의에 근원이 있으며, 둘째 견해는 조선반도 식민지화를 정당화 하기 위한 일본제국의 선전의 유물이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익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본지 9월 판에 실린 '한일 병합의 배경' 을 참고하기 바란다.

명성황후는 성인도 괴물도 아닌 인간이며 일개 여성이었다. 그가 괴물화 됐던 것은 주자학 유교 봉건 사회내의 모순성에 있었다.

그의 성품과 행실은 여러 요소에 근원이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의 본당 여흥민씨와 출생가, 그의 현명함, 소시적 가난함과 부친과 사별, 혼례직후 3년간의 독수공방살이, 대원군의 정치 야망과 민비에 대한 경계, 고종왕의 온순함, 고종왕성숙 후, 대원군과 충돌, 불우한 자식 출산, 외아들 순종의 쇠약함, 이 모든 것이 그를 강한 아내와 어머니를 만들어, 때로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려 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적 본능에서 온 것이라 아니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민중전을 제일 긴급하고 불안하게 한 것은 세계적인 제국주의 팽창과, 조선왕국의 생존 위기와, 일본의 가차없는 침범이었다.

민중전은 외아들 순종이 세자로 간택된 후에는 조선 왕조의 종묘 사직을 보존하고, 왕국을 재활시키는 것이 일생의 사명이 됐다. 그의 아들 순종에게 강대한 왕국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청국이 청일 전쟁에서 참패하고 수백년 종주국의 관계를 조선 왕국과 단절하게 되고, 일제 세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자 민중전은 제3세력을 탐구했다.

그러던차, 러시아 제국이 프랑스와 독일을 선동해 일제에게 압력을 가해 책략적인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하게 한 것을 목격한 민중전은 러시아를 가까히 해 일제 침범을 견제하려 했다.

민중전의 책략이 의외로 성공해 1895년 가을 초 일본세력의 장래는 훈련대라는 친일 군대 해산만 남은 풍전 등화격이 됐다. 일제는 그 전날 밤 만행의 거사를 일으켰다.

민중전의 시해가 알려지자 국제사회에서는 일제를 탄핵하는 성명서가 채택됐다. 아무리 제국주의 전성시대라 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는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외면할 수 없었으나, 무력을 사용해 일본을 견제할 의도는 돼 있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 반도에 파견됐던 관계자 관리들을 소환해 연금하고, 다음 해 1월 히로시마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으나, 증거 부족이라는 명색으로 모두 석방됐다. 오히려 이들은 몇년 후 일본 왕으로부터 국가공로상을 받고 숭진도 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한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점은, 일제에게 한민족에게도 강직한 주관성이 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민족이 참을성이 있어 반응이 늦기는 하지만, 무한으로 깃밟히는 지렁이만은 아니라는 것을 내세웠다.

사실상 명성황후가 보여준 정신은 20세기 들어 일제침략이 더욱 가혹해지면서, 여러 애국투사들이 충분히 발휘해 일제를 경탄하게 했다.

그러나, 애통하게도, 대한제국을 구하기에는 모두의 힘이 너무나 부족했고, 이미 시기조차 너무 늦어 있었다.

*민중전은 흔히 '민비' 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일제가 민 왕비를 능멸하는 뜻으로, 후궁에게 쓰던 칭호를 썼다고 필자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에 '명성황후' 로 불리기 전에는 '민중전' 으로 불렀다.

<2010년 9월26일 메반스턴에서>

# "공정한 사회는 법치사회다"

김흥묵(문리대 사회학과)

'공정한 사회구현' 은 여야·좌우·빈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대의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르다(just and fair)' 는 뜻의 '공정(公正)' 은 인류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공정은 그러나 사회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욕망, 상대적 불만이 있는 한 아무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병법의 대가로 알려진 고대 중국의 손무(孫武) 일화는 실효성 있는 공정의 구현방식을 일깨워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齊)나라의 손무는 오(吳)나라 왕 합려(闔廬)에게 발탁돼 초(楚) 제(齊) 진(晋)을 굴복시킨 전략가로 병서 손자 (孫子)를 남겼습니다.

맹장 오자서(伍子胥)의 천거로 오군의 원수 겸 군사(軍師)가 된 손무는 어느 날 병법에 관한 어전강의 도중 "병법을 잘만 이용하면 군인 뿐만 아니라 안방 부녀자들도 군사로 이용할 수 있다" 고 호언했습니다. 오왕 합려도 오자서도 의아해 하자 그는 각서까지 쓰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식하고 논리가 정연한 손무의 병법 강의에 감탄한 합려는 즉석에서 궁녀 180명을 동원, 손무의 조련 방법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손무는 화려한 의상에다 머릿기름과 분 냄새가 진동하는 궁녀들을 양 편대로 나누고 하빈(夏嬪)을 좌군, 강빈(姜嬪)을 우군 대장으로 삼아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손무는 먼저 다섯 가지 군사 행동규범을 알려주었습니다. 행렬을 흔란시키는 자, 행군시 낙오하는 자, 훈련 중 잡담하는 자, 군율을 어기는 자, 약속을 위반하는 자는 군법으로 엄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생사가 걸린 전쟁에서 행동통일을 위한 행동규범은 군대의 명맥이므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알겠느냐!"

손무의 비장한 훈시에도 궁녀들은 희희덕거리고 비아냥거리며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궁녀들의 정신상태부터 고쳐놓아야 겠다고 벼른 손무는 실제 훈련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북을 한 번 울리면 자기 편대끼리 도열하고, 두 번 울리면 편대별로 진을 치고, 세 번 울리면 진을 풀고 제자리에 모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군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왕의 총애를 받던 궁녀들은 편대 구성은 커녕 우왕좌왕하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북소리에도 포진과 도열 따위엔 관심없이 시시덕 거리기만 했습니다. 손무는 분노가 극에 달한 표정으로 군기관(軍紀官)을 불렀습니다.

부리나케 달려온 군기관에게 손무는 "군령을 어긴 군사들에게 어떤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군기관은 "군사가 군령을 어기면 먼저 대장을 참형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 답했습니다. 손무는 바로 "좌군 대장 하빈과 우군 대장 강빈을 참수하라" 고 명을 내렸습니다. 형리들이 장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형 소리에 궁녀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더욱 놀란 사람은 오왕이었습니다. 왕은 대부 백비(伯)를 불러 "하빈과 강빈은 내가 각별히 총애하는 궁녀들이니 처형을 중지하라" 고 명령했습니다.

손무는 "왕명으로 임명된 지휘관은 전장에서는 왕명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며 끝내 두 대장 궁녀를 참형했습니다.

손무는 새로 대장을 뽑았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궁녀들의 행동은 놀랍도록 민첩해졌습니다. 북소리에 따라 삼시간에 편대를 이루고, 정연하게 포진하는가 하면 원래 위치로 헤쳐모이기까지 어느 정예부대 못지않았습니다.

두 애빈(愛嬪)을 잃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오왕도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포부를 가진 왕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 는 오자서의 충간을 받아들여 손무를 중용했습니다.

손무의 궁녀군대 만들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추구하는 목적과 규정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행동규범과 훈련지침이 그것입니다.

다음은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데 예외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장의 군율 집행에는 왕의 특명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도 통하지 않는 법의 엄격함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도 위의 두 가지 원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으면 일벌백계하되 읍참마속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군율처럼 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자유·평등·평화·정의·화합·사랑이 풍만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7



논 단 | 노벨문학상 & 전통문화

아시안 노벨문학상 소감 ◈

# 어학천재 중국1세의 노벨문학상

김일훈(의대 57년졸)

한문은 몇 천년 이전 중국선조가 창조한 경탄할 상징문자이며, 현제 중국인은 물론 한국인•일본인이 애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지적이고 학술적인 문자다.

서구문화권에 잘 알려진 많은 중국 작가들은 그들 선조의 우수한 언어감각 유전자를 타고났음인지, 모두가 기이(?)할 정도로 어학 천재들이다.

그리하여 외국에 보급된 그들 작품들 대다수는 중국어가 아닌 외국어(영어•프랑스어)로 쓰였으니 서구권에서 시행되는 노벨문학상 심사에서도 아시아인 작품이 고역을 치르는 '언어와 문화의 벽' 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중국태생 노벨문학상 수상자 고행건(高行健)과 유력한 후보였던 임어당(林語堂)을 먼저 소개한다.

## 고행건(Gao Xingjian)

중국서 자란 펄벅의 1938년도 노벨상 수상작 '대지' 가 중국을 소재로 한 것처럼 2000년도 수상 작가 Gao의 작품소재도 자신의 조국 중국대륙이다.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은 중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작가 펄벅 여사는 '대지' 를 그녀의 모국어인 영어로 썼다.

반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Gao의 수상작 '영산(靈山 Soul Mountain)' 과 '어떤 남자의 성경(One Man' s Bible)' 은 중국어와 프랑스어로 그 자신이 쓴 작품이라는 것이다.

'영산' 은 암 선고를 받은 남자가 중국 남부의 산야를 방황하는 모습을 그린 장편소설로 1989년 파리에서 출간됐다.

1998년에 나온 '어떤 남자의 성경' 은 자신이 직접 겪은 중국 문화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기도 하다.

Gao는 1940년 중국 남부의 '강서성' 에서 출생해 북경외국어학교 프랑스어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어 번역가로 활동하는 한편, 극작가로서 여러 작품을 발표해 중국 연극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89년 천안문사건을 계기로 파리에 정치 망명해 199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는 파리에서 소설가•희극작가로 활약 중이며 화가로서도 인정받아 전시회를 갖기도 한 다재다능한 인물이다. 프랑스어 또는 중국어로 쓰인 그의 다양한 저작물(소설•희극•화보•평론 등)중 영어로 번역되어 보급된 것만 해도 30종류나 된다.

망명 작가인 그의 작품은 중국 본토에서 판매 금지됐으나, 인민일보는 2000년 그의 노벨상 수상뉴스를 보도했으며 근래엔 그의 일부 작품이 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임어당(Lin Yutang)

노벨 문학상의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는 중국이 낳은 세계적 작가인 Lin의 저작물을 읽은 분들이 많을 줄 믿는다.

Lin은 1895년 중국 복건성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기독교 가정환경에서 자라났으며, 상해의 크리스천 스쿨인 '세인트-존스' 대학을 졸업(1916년)한 후 북경 청화대학 영어강사로 재직했다.

훗날 그가 회상한 것처럼 "미션스쿨에서 배웠기 때문에 중국국학을 경시(輕視)하게 되고, 중국 고전에도 어두운 결과가 됐다"

그리하여 영어강사 시절 북경의 고전 서점가를 열심히 드나들면서 독학으로 중국문학과 고전지식을 익혔다고 한다.

1919년 하버드대의 장학금을 얻게 되어 결혼한 부인을 대동하고 미국 유학하여 비교문학을 공부했으며, 그 후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해 192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에 귀국했다.

귀국 후 북경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한편, 재야 언론인으로서 수구세력에 대항해서 중국의 사회개혁을 위해 날카로운 필봉을 발휘했다. 특히 영문잡지 '중국평론주보' 와 '천하월간' 에 시사평론과 중국 고전작품의 영어판 발표에 힘썼다.

그에 주목한 '펄벅' 여사(훗날 노벨상 수상자)의 권장에 따라 영어작품 '나의 고국 우리국민' (My Country and My People)을 집필해 1935년 뉴욕에서 출판됐다.

이 책은 중국의 민족•풍토•사상•문화•철학•역사를 서구세계에 알리는 내용으로서, 출판 후 곧 미국 베스트 셀러가 돼 미국사회에 문학가로서 그의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이 계기가 돼 1936년 그와 가족은 미국에 이주하고, 그 후 1966년 자유중국 대만에 귀국할 때까지 30년간 외국생활을 하게 됐다. 이렇듯 날 때부터 Cosmopolitan적 운명을 타고난 그는 중국에서 성공한 후 국제사회에서도 활약하는 길이 트였던 것이다.

↑왼쪽이 고행건, 오른 쪽이 임어당의 젊은 시절 모습이다

기나긴 외국생활 기간 중 3년간(1947~1950년)은 유네스코의 예술부장으로 파리생활을 했으며, 한 때(1954년)나마 싱가포르에 신설된 남양(南洋)대학 총장직을 맡았으니, 동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Lin이 동서를 연결하는 최고학부 총수로 군림했다고나 할까.

그 기간 외엔 미국 뉴욕에 정착해 집필활동에 전념했으며, 외국 체재 30년간에 29권의 영어 서적을 선보였으니, 거의 매년 1권씩 출판한 셈이며 그의 여러 저작물들은 미국에서 계속 베스트 셀러가 되고 각국 말로 번역, 세계에 보급됐다.

특히 1937년 나온 '생활의 발견(The Importance of Living)' 은 미국서 40판 이상 출판을 거듭, 20세기 중반기의 세계 베스트셀러로 손꼽혔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미 사회의 평가는 한 때 노벨문학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명됐으나, 2차대전 중 노벨상이 일시 중단됨으로서 애석하게도 수상기회를 놓쳤다고 전한다.

1966년 귀국 이후 대만과 홍콩에 정착해 1976년 81세로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그는 중국어로 많은 논평과 수필을 썼으며, '홍루몽' 을 비롯한 많은 중국 고전을 번역(영어)해서 해외에 출판 소개하고 평소 그의 소원이던 당대 한영사전(當代漢英辭典)을 완성했다.

그의 저작물은 모두 50권이나 되고, 현재 미국에서 그의 작품 총 29개 외에 그의 아내와 딸 셋의 작품 14권이 판매되고 있다. 국제적 작가였던 '임어당' 은 현제 서구사회에서 70대 이상의 노인 지식층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아시아 작가라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어로 글쓰는 노벨상 작가 고행건과 영어로 쓴 명작으로 서방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한 때 유력한 노벨상 후보였던 임어당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외국어로 쓴 세계명작을 보급한 바 있는 다음의 중국 1세 여성 작가들이 있음을 알리는 바다.

▶한수잉(韓素英 Han Suyin)=영어 작품 ▶장룽(張戎 Chang Jung)=영어 작품 ▶쳉넨(鄭念 Cheng Nien)=영어 작품 ▶양일(楊逸)= 일본어 작품

# "전통문화는 한류의 상수원"

신승일(공대 81)

기온마츠리는 일본의 3대 마쯔리 중 하나지만 축제 중의 축제로 일컫는다.

해마다 7월 한 달 교토를 달구는 이 행사는 서기 869년 시작돼 1천년 이상 유구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긴 장마 끝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이 죽어가자 악귀를 몰리치고자 제사를 지낸 것이 유래다.

전문가들은 이 마츠리 유래가 고대 신라의 신 '우두왕' 을 달래기 위한 제사였다고 한다. 이 화려한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전야제격인 16일의 오이야마와 다음 날의 야마보코 순행(가마행렬)이다.

'움직이는 박물관' 이라 할 수 있는 32대의 화려한 가마에는 악귀를 무찌른다는 길고 날카로운 창 외에 잉어와 당랑, 소나무, 관음보살 등 역사와 신화에 근거한 수호신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필자가 연전에 오이야마를 구경했을 때, 알록달록한 유카타를 입은 젊은 남녀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축제를 즐기는 것이 인상 깊었다.

유카타는 원래 목욕 후 입는 욕의(浴衣)로 현대적 디자인으로 만들어 요즘은 젊은이들도 즐겨 입는다.

우리 '한복' 은 어떤가. 명절이나 예식 때만 입는 불편한 옷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일본의 기모노, 중국의 치파오처럼 한복은 한국의 대표적 전통의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한복이 젊은이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현대의 요구에 맞게 적극적으로 탈바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전통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즉 과거의 기술로 현대의 요구에 부응해야지, 무조건적인 전승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전에는 마츠리에 견줄만한 것이 많았다. 고대 부여의 영고(迎鼓), 예의 무천(舞天), 고구려의 동맹(東盟) 등 제천의식은 역사책으로만 존재를 알 수 있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이어져 온 아름다운 전통놀이와 제례 등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급속히 잊혀졌다.

반면 마츠리는 일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전통을 보존하며, 지역 사회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민중적 종합예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게다가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의 부흥에도 일조한다. 일본의 신사(神社)에서는 단절된 옛 마츠리를 발굴해 새로운 형태의 마츠리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상업성도 있지만 마츠리가 지닌 성스러움, 생명력과 단결심의 전통을 고수하는 일본의 전통보존을 보며 반성도 하고 부러움도 느낀다.

일본이 재퍼니즘에 이어 네오재퍼니스크(新日本樣式)로 세계에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전통에 바탕을 둔다.

작금 한류가 세계를 풍미하고 있지만, 전통의 복원과 현대적인 계승에 소홀히 하면 정체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중문화 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인의 삶이 녹아 있는 전통문화는 현대문화를 재창조하는 상수원이며 재료가 된다.

우리 전통문화의 저류에는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 친환경, 친자연, 참살이(웰빙)적 요소, 건강, 품격, 과학이 배어 있다. 기후변화와 현대 기계문명의 폐해에 지치고 경쟁에 찌든 현대인들은 우리 전통문화에 잠재된 요소들에 반하고 있다. 김치, 막걸리, 비빔밥, 온돌, 한지, 한글, 한복, 판소리, 옹기, 옻칠, 된장... 세계인들이 환호하고 놀라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우리는 오히려 소홀히 하고 서양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기 소르망은 "자신들의 가치 체계에 대한 대안을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는 서구인들에게 한국이 서구를 열심히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뜻밖이다" 라고 했다. 오늘날 기온 마츠리가 어떻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지 보고 배울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의 전통문화는 세계인의 요청에 부응해 세계화 될 수 있다.

고 박동진 명창의 말마따나, '우리 것은 소중한 것' 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문화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보편적 문법으로 세계화한다면 세계인이 원하는 콘텐츠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한류의 세계화며 문화강국 입국의 길이요, 기업이나 작가에게는 블루오션을 발견하는 첩경이 된다.

세계인에게 재미와 새로움을 주되 한국적 정체성이 가미된 문화콘텐츠와 문화상품은 한국적 신성장산업과 신수종사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문경(文經)시대를 맞아 한류가 아시아류를 넘어 세계류가 되기를 희망한다.

<필자 소개>1981년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 92년 버지니아텍 박사(시스템공학), 인포미디어(주) 대표이사(98년), 21세기정보 통신 CEO(03년) 역임. 현재 한류전략연구소장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8



음악 칼럼

# 예술 가곡을 찾아서

## <1>예술 가곡의 배경

정호(공대 62)

고전음악(Classical Music)의 하나의 큰 장르를 차지하는 '예술가곡(Lied or Lieder)'은 '시(詩)'를 '음악'과 예술적으로 융합해 표현함으로써 그 시의 내용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한다.

또한 예술가곡은, 가사내용의 깊이나 의미의 차원을 훨씬 넘는 음악의 가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작곡된 원어(독일어·프랑스어 등)의 가사를 구절구절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예술가곡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 충분히 그 곡에 매료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 물론 원어로 된 가사를 줄줄이 이해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친숙해 있는 오페라의 아리아들은 대사의 대부분이 극작가나 오페라 작곡가가 쓴 대본에서 유래했다면, 예술가곡은 음악으로 작곡되리라는 염두를 두었거나 예측에 의해 쓰여지지 않고, 시인 자신이 후에 그의 작품이 예술가곡의 가사가 되리라는 아무런 예상없이 쓴 순수한 시(詩)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예술가곡의 기원은 중세의 음유시인(Meistersinger)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 예술가곡의 시작은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독일의 베토벤 이후 테어나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슈베르트(Franz Schubert)에 의해서다. 이어 독일의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n),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리히할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등이 예술가곡을 작곡해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게 됐다. 그후 아놀드 쉔베르그(Arnold Schönberg)·커트 와일(Kurst Weil),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휴고 볼프(Hugo Wolf)·구스타브 말러(Gustav Mahler)등이 예술가곡의 전통을 이어갔다.

프랑스에서는 예술가곡을 멜로디(mélodie)라 부르며, 작곡가로는 엑터 베르리오즈(Hector Berlioz)·앙리 듀빠르크(Henri Duparc)·끄로드 드뷔시(Claude Debussy)·모리스 라벨(Maurice Ravel)·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é)·레이날도 안(Reynaldo Hahn)·프란씨스 뿌우랑(Francis Poulenc) 등이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많은 예술가곡이 작곡됐는데 그중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몬테벨디(Claudio Monteverdi)·지아코모 로시니(Gioachino Rossini)·파울로 토스티(Paulo Tosti)와 스페인의 엔리꿰 그라나도스(Enrique Granados)·페르난데즈 오브라돌스(Fernando Obradors)·요아퀸 로드리고(Joaquín Rodrigo)와 요아퀸 투리나(Joaquín Turina)를 들 수 있겠다. 그 외에도, 동부 유럽과 러시아, 영국과 미국의 작곡가들도 예술 가곡을 많이 작곡했다.

한국에서는 금수현·김성태·김동진·이흥렬·조두남·채동선·최형섭·홍난파 등의 작곡가가 우리 근대 역사에 중요한 한국 가곡을 남겼다.

예술 가곡의 형식은 크게 유절 가곡과 통절 가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가곡을 모은 연가곡이 있다.

유절 가곡은 가사의 절은 다르지만 같은 선율을 반복해 부르는 형태며, 여러 절의 가사를 하나의 선율로 노래하도록 작곡된 형식인데 대표적 작품으로는 슈베르트의 '들장미'와 홍난파의 '봄처녀'가 있다.

변화 유절 가곡은 유절 가곡의 원칙에 따르면서 가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만 통절 가곡으로 된 곡으로 슈베르트의 '보리수' 등이 있다.

통절 가곡은 각 절의 뜻이나 기분에 맞춰 다른 멜로디가 불는 것으로 반주가 가사의 정경을 묘사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슈베르트의 작품 1번인 '마왕(Erlkönig)'을 비롯해 많은 가곡들이 통절 가곡으로 돼 있다.

연가곡은 사상적·성격적으로 서로 관련있는 몇 개의 가곡을 모아놓은 것으로, 하나의 음악적 체계로 엮어져 있다. 대표적 작곡가와 작품은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Die schöne Müllerin)', '겨울 나그네(Winterreise)'와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슈만의 '시인의 사랑(Dichterliebe)'과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liebe und Leben)' 등이 있다.

예술가곡의 연주는 많은 교향악과 오페라 연주에 비해 흔하지 않다. 수천명을 수용하는 대형음악당에서 초 현대식 음향및 조명효과로 화려하게 연출되는 오페라나 관현악단의 연주는 그대로의 멋과 가치가 확실하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실내악 연주 분위기가 적격인 '예술가곡'의 음악회는 가수와 피아노 한대가 교작이지만, 관객에게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아주 깊은 예술의 경지와 친근미가 넘치는 분위기의 잊을 수없는 경험을 가져다 준다.

필자는 교향곡, 오페라, 실내음악, 기악 독주회등 많은 음악회를 관람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회를 꼽으라면 서슴치 않고 약 10년전 관람한 독일의 유명한 테너 Lied 가수 페터 슈라이어(Peter Schreier)가 부른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라고 하겠다. 70세가 다 된 노장인 그는 자신이 겨울나그네의 주인공이 돼 그의, 아니 우리의 인생전부를 얘기하듯 엮어 나갔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방황하며, 실망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희망의 실오라기를 찾으며, 때로는 흐르는 시냇물에 자신의 외로움과 피로움을 호소해 위로를 받고, 희로애락의 언덕과 궁지를 헤매며 방황하다, 드디어 늙어가는 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며 끝낸다.

이탈리아의 벨칸토 발성, High-C 까지 올리는 높은 음역, 콜로라투라 창법 등, 온갖 현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오페라 가수들의 숙제라면, 예술가곡의 성악가는 작품의 가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diction)'은 기본이고, 그 가곡이 전해주는 구구절절의 뜻과 뉘앙스를 심도있게 표현해야 한다. 피아노 반주의 명수였던 '제럴드 무어(Gerald Moore)'와 '지오프리 팔손(Geoffrey Parsons)'이 그랫듯 solo pianist의 재절이 요구될 정도의 기술과 해석능력 외에 성악가와 절묘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앙상블 연주가 필수다. 지난 세기의 유명한 예술가곡 남성성악가로는 겔하트 휘쉬(Gerhard Hüsch)·한스 호터(Hans Hotter)·샤르르 빵제라(Charles Panzéra)·프리쯔 분더리히(Fritz Wunderlich)·피터 피어스(Peter Pears)·헤르만 프레이(Hermann Prey)·니코라이 게다(Nicolai Gedda)·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Dietrich Fischer-Dieskau)·호세 반담(José van Dam)·제라드 수세이(Gérard Souzay) 등이 있고, 현재 한참 활동하는토마스 콰스토프(Thomas Quasthoff)·오라프 발(Olaf Bär)·마티아스 괘르네(Matthias Goerne)·토마스 햄손(Thomas Hampson)·이안 보스트릿지(Ian Bostridge)가 있다.

여성성악가로는 로테 레만(Lotte Lehmann)·에리자베스 슈만(Elizabeth Schumann)·에리사베스 슈발쯔코프(Elisabeth Schwarzkopf)·빅토리아 데 로스앙헬레스(Victoria de los Ángeles)·엔네리세 로텐벌거(Anneliese Rothenberger)·테레사 벨간자(Teresa Berganza)·체칠리아 발롤리(Cecilia Bartoli)·브리기트 화쓰밴더(Brigitte Fassbaender)·크리스타 루드빅(Christa Ludwig)·재넷 베커(Janet Baker)·바바라 보니(Barbara Bonney) 등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이 예술가곡 외에 오페라에 출연했지만 독일의 피셔디스카우·마티아스 괘르네와 콰스토프, 프랑스의 제라드 수세이는 예술가곡을 주로 연주해서 특히 유명하다.

이들의 연주는 물론 CD와 DVD를 구입해 듣고 볼 수 있지만, 요즈음 많이 개발된 Internet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즉 Youtube(www.youtube.com)를 열어 원하는 곡목이나, 혹은 연주자 이름을 입력하면 많은 음악과 비디오 동영상을 무료로 접할 수 있다. Internet에 뜨는 수많은 동영상 중에는 현재, 그리고 지난 세기 녹음 녹화됐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의 연주도 있는 반면, 아마추어 수준의 연주자들이 올려놓은 Youtube도 섞여 있으므로 선별해 보고 들으면 된다.

또한 여러 작곡가나 음악의 자세한 내용을 Internet 백과사전이랄수 있는 www.wikipedia.com으로 접속해 찾아볼 수 있다.

필자가 특히 좋아하는 독일 가곡의 녹음은 주로 독일 남성 성악가에 의해서다. 35세에 요절한 미성의 테너 Fritz Wunderlich가 녹음한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와 슈만의 '시인의 사랑', 베이스 바리톤 Hans Hotter가 녹음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그리고 바리톤Dietrich Fischer-Dieskau가 녹음과 녹화한 슈베르트의 가곡전집이다.

영국의 테너 Peter Pears가 피아니스트며 작곡가인 Benjamin Britten과 같이 녹음한 '겨울나그네'는 역사적인 가치와 함께 훌륭한 연주다. 근래 크게 각광받고 있는 영국 테너 Ian Bostridge의 '겨울 나그네'는 또다른 각도에서 신세대의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연주다.

프랑스 바리톤 Gérard Souzay는 독일가곡도 많이 불렀지만 역시 그의 최고 연주는 Henri Duparc·Claude Debussy·Maurice Ravel등의 프랑스가곡이다.

메조 소프라노인 독일의 Christs Luwig와 Brigitte Fassbaender, 영국의 Janet Baker등 여성 성악가들도 슈베르트의 가곡을 많이 연주하고, 또 녹음도 했지만 필자는 독일의 Lotte Lehmann과Elisabeth

세계적인 테너 Peter Schreier가 지난 2005년 11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열창하고 있다.

chwarzkopf, 스페인의 Victoria de los Ángeles 가 부르는 독일가곡과 스페인 가곡을 많이 즐기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성악가들의 곡 해석의 깊이와, 개성이 뚜렷한 창법, 그리고 그들 특유의 아름다운 음색에 매료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디지털 영상물이 시장에 DVD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말 손쉽게 구입해 보고 들을 수 있는 세상이다. 특히 권하고 싶은 영상물은 EMI-에서 출시한 'Art of Singing',휘셔디스카우의 'The Art of Fischer-Dieskau', 'Autumn Journey and Schubert Recital', 'Die schöne Müllerin'과 'Winterreise', 제럴드 수제이의 'Art of Gérard Souzay', 로테 레만의 'Lotte Lehmann: Mater Class'와 에리자베스 슈발쯔코프의 'Elisabeth Schwarzkopf:Classic Archive' 인데 Amazon.com 같은 인터넷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흥미와 정렬을 가지고 찾아도 보고 열심히 들으면, 자칫 어렵게 느껴지던 예술가곡 분야도 우리에게 다가와 생애를 더 한층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다음달에는 슈베르트를 중심으로한 독일가곡을 소개하겠다)

<필자소개>정호 동문은 공대 조선항공과 졸업후 ROTC 4기로 육군 중위 제대, KIST 초창기 연구원 근무중 1969년 도미, 보스턴 지역 Tufts 대학에서 기계공학 석·박사에 이어 시카고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MBA)학위를 받았다. 보스턴지역 MIT Lincoln연구소와 시카고의 국립알곤연구소에서 40여년을 원자력발전소 개발에 관한 연구생활후 은퇴했다. 미 기계공학협회및 재미 한인 과학기술인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2008년 시카고지역 모교 동문회장으로 봉사했다. 큰 취미인 '고전음악' 분야에서 많은 LP·CD및 DVD를 수집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2년 동안 미국 Steinway 피아노 Concert & Artists 시카고 지역의 책임자 역할도 했다.그리고 시카고 한인 음악애호가 협회에서 음악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연재되는 '예술가곡을 찾아서'는 시카고 드폴대에서 정치학 교수를 역임했던 조민규(문리대 50입) 동문과 공동 집필하게 된다.

### 동문 시 감상

#### 고향의 코스모스 꽃

김태환(법대 46)

코스모스 꽃
너는 나무꽃도 아니오
풀꽃도 아닌 한낱 가냘픈
줄기꽃

따뜻한 봄날에 고향마을
집 둘레, 길 가에, 새 싹
솟아나
여름내 물 주는 사람 없어도
스스로, 홀로, 자라난 가을
꽃 너 코스모스꽃

꽃잎 여덟잎에
가지 가지 색 꽃 피어
마을에 오시는 손님에게도
나 여기 피어 있노라고 인사
하며 고개 숙여 피어난 꽃

포기 포기 꽃, 송이 송이 꽃
너는 빙그레 웃으며
마을 손님을 맞이했지

고향의 코스모스 꽃
너는 올 가을에도 그 곳에 피어 있는지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9



동문광장 | 독후감 • 시

# Uncle Tom

조태환(상대 56)

'Uncle Tom' 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 전부터 들어왔으나 미국서 사는 동안 이 말은 경우에 따라, 또 발언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과연 Uncle Tom 이란 누구냐?" 에 관한 의문을 가지게 됐다.

백인들이 점잖은 음성으로 이 말을 쓸 때는 대개 '제 자리를 알고 있는 양순한 흑인' 이란 약간의 멸시감이 포함된 것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흑인들이 자신을 "Nigger" 라고 자조적으로 불러가면서 쓸 때는 '불의에 항거할 줄도 모르고 무조건 굽신거리면서 사는 비굴하고 천치같은 흑인' 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늘 궁금했다.

그런데 Harriet Beecher Stowe 여사의 'Uncle Tom' s Cabin' 을 읽고난 후 제3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아마 이 제3의 정의가 맞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

그것은 'Uncle Tom 은 Saint Tom 으로 불러주어야 할 만큼 죽음 앞에서도 원칙을 값싸게 흥정해버리지 않는 용감한 남자다운 사람이며 누구보다 몸으로 기독교를 믿으며 실천해온 철저한 기독교인' 이라는 것이다.

저자 Stowe 여사는 Connecticut 주에서 1811년 노예해방주의자였던 목사의 딸로 태어나 오빠와 남편 역시 노예해방주의 목사였던 집안 출신인데 1896년까지 장편소설 10편, 무수한 단편소설들을 써낸 부지런한 분으로 이 책은 미국 출판사상 최초로 100만권이나 팔린 소설이며 전 세계에 각국어로 번역, 보급됐다.

Lincoln 대통령이 Stowe 여사를 만나 "So this is the LITTLE lady who wrote the book that made the GREAT war!" 라고 감사했다고 한다.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 찬반문제로 민심이 극도로 갈라져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노예제도 반대자들이 암살되기도 했으며 방화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는데 미국의 양심을 전 세계의 비판대 위에 올려놓게 한 이책을 썼다는 것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한 용감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예해방 선언(1863.1.1)이 포고되기 불과 13년 전인 1850년 노예제도 불인정 주에서도 노예주에서 탈출한 노예가 잡히면 탈출한 주로 압송하도록 규정한 연방법(The Fugitive Act of 1850)이 제정되자 Stowe 여사는 실질적으로 노예제도를 미국 전국이 채택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1852년 이 책을 출간함으로서 위와같은 Lincoln 대통령의 찬사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의 양심에 폭발물을 던졌다.

이 책은 원래 18년간의 Kentucky 주의 생활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노예로서의 체험담을 얘기해준 사람들의 증언들을 근거로 정기간행물에 연재소설로 게재했던 것을 출판사 권유로 단행본으로 출판했는데 출간 3개월만에 10만권이 팔리면서 Stowe 여사는 단숨에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게 됐다고 한다.

이 책이 나오자 가장 극렬하게 비난을 퍼부은 것이 기독교 교계였는데 그 이유는 Stowe 여사가 노예제도를 "미합중국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북인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한 정치가들(놀랍게도 Lincoln 대통령을 포함)과 "신실한 종이여 …" 라는 성경구절을 들먹여 가면서 "노예제도는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제도로 노예들은 저승(Heaven)에서나 잘 살 생각을 해서 이승에서는 말썽부리지 않고 제 자리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고 주장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향해 직격탄을 쏘았던 탓이다.

그 때 Africa 선교에 미 기독교계가 열성이었던지 Stowe 여사는 "수만리 떨어진 곳의 낯모르는 미개인들을 선교한다고 하지 말고 이미 거기까지 가서 잡아다가 집 뒷뜰에 묶어놓은 노예들을 해방하고 선교하고 교육해야 한다" 고 교계와 목사들을 비난했던 까닭이다.

모든 인종들이 그렇듯이 이 소설에 나오는 백인 노예주들 중에는 천사같은 사람들도 있으나 악마같은 사람들이 있고 흑인 노예들 중에도 백인의 앞잡이로 같은 노예들을 고문하고 혹사시키는 악질부터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이 나온다.

'Uncle Tom' s Cabin' 은 Tom 이라는 착한 중년의 흑인이 노예생활 중 악귀같은 백인 노예주의 매질로 사망하는 얘기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여러 노예들의 비참한 숙명적 체험을 기술해서 'Insanity of Slavery System and the evils Materialism' 을 신랄하게 비판해 놓아 소설이라기보다는 신학교 필독서가 돼야 할 정도의 종교서적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Stowe 여사는 북부에 살면서 노예수입업에 암암리에 투자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위선자들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남부의 노예제도를 입으로는 격렬히 반대하면서도 노예 해방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않거나 못하는 북부 노예해방주의자들도 비난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착한(노예주를 위해?) 우리의 Uncle Tom 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니 어서 구출해 주세요!" 라고 발을 동동 굴러 결국 남북전쟁이 발생된 이유 중 하나가 됐다는 평가까지 받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Stowe 여사의 생각도 '백인' 이라는 한계선 안에 갇혀있음을 보게 된다. Uncle Tom 이 왜 '비굴한 바보천치' 가 아니라 '순교자 같은 착한 사람' 으로 묘사됐어야 하는지 대부분의 흑인들은 의아해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흑인혁명이라든지 흑인자기각성등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Tom 이외에 소설의 등장 노예들 얘기 중 유일한 happy ending 은 Eliza 의 가족 얘기다.

머리가 좋고 거의 백인으로 보일 정도의 피부와 체격을 가진 노예인 남편 George 가 팔려 나가고(각각 다른 주인들 밑에서 떨어져 살고는 있었지만) 자신도 아들과 함께 따로 팔린 것을 알자 네살박이를 가슴에 안고 추격자들을 피해 겨우 얼기 시작해 버석 버석 깨지는 얼음강을 건너 노예주 Kentucky 에서 비노예주 Ohio로 도망간다. 그녀는 Quaker 교도들의 보호 속에 숨어 살다 역시 탈출해 돈을 모은 남편을 만나 Canada로 탈출한 뒤 Paris로 가서 George가 대학공부를 마치고 미 흑인들이 가서 세운 Africa 의신생국가 Liberia(1847년 건국) 로 떠날 계획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남부의 일부에는 피에 16분의 1만 흑인피가 섞여 있으면 흑인으로 분류한다는 법이 살아있는 주들이 있다는데 흑백이 혼혈되다 보니 외관상으로는 완전히 백인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흑인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흑인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이 소설의 Cassy 라는 노예는 백인을 아버지로 두고 노예였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친딸로 귀하게 길러 귀족처럼 자라 불어공부까지 마친 Teenager 생활을 보냈으나 아버지가 노예해방서류를 만들어 놓기 전 사망하면서 집안이 몰락하자 재산정리과정에서 노예로 팔려 나가 노예로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

미 독립선언문에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라는 명언을 써넣은 Thomas Jefferson 대통령도 "Men" 에는 백인만을 포함했다. 그는 174명이나 되던 노예들중 16살이던 Shelly Hemmings 라는 노예와 그가 죽을 때까지 37년간 내연의 관계를 가지고 일찌기 죽은 아이 둘 외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으나 그들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80여년 전 Jefferson 가의 후손들과 Hemmings 가의 후손들이 서로 인정하고 화해해서 만났다는 일화가 있다.

그는 신문에서는 풍자만화나 사설로까지 선거 때마다 이 '외도' 문제로 공박을 받았으나 대통령을 두번이나 지내고 미 대통령중 가장 훌륭한 Founding Fathers 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노예문제는 미국의 역사와 이렇게 얼키고 설켜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 소설에는 백인 주인이 여자 노예를 성폭행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몇 달된 자신의 아이이기도한 어린애를 엄마에게서 떼어내 파는 악마같은 주인들이 등장하고 자식과 같이 팔려 가게 되는 것을 알고 생후 2주일이 되는 아이를 젖을 먹이다 일부러 꼬옥 껴안아 질식해 죽게 만드는 노예 엄마의 슬픈 얘기, 한 살된 아들과 같이 팔려 Mississippi 강의 연락선을 타고 가다 잠깐 조는 사이 아기를 떼어내 따로 팔아버린 것을 안 노예엄마가 강물에 투신자살하는 참극도 일어난다.

아주 열악한 시설의 형무소 같은곳에 며칠 수용됐다가 노예시장에서 경매로 가축처럼 팔려나가고 노예가 주인이 써준 Note 를 들고 가 쓰여진대로 매를 맞고 오는 Whipping House 등의 비참한 일화도 나온다. 더러 인간성이 착한 주인도 있지만 거의 광기 섞인 무자비한 매질과 천대로 노예를 길들이는 주인들이 훨씬 더 많다.

Uncle Tom은 주인 Shelby 씨댁 아들인 George 가 사랑과 존경이 포함된 의미로 First name 에 Uncle을 붙여 불러준 데서 나온 얘기다. 노예라는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Shelby 씨 댁에서 비교적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Tom은 머지 않아 노예신분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Masa' Shelby로부터 받아놓은 억세게 운이 좋은 노예기도 하다. 가끔 참석해 본 부흥회 목사들 설교와 혼자 배운 독서실력으로 손가락으로 한자씩 짚어가며 읽어온 성경이 기독교 신앙배경의 전부인 Tom 이지만 일과가 끝난후 Uncle Tom' s Cabin 으로 매일 저녁 모여드는 노예들 앞에서 부흥회 목사의 언성까지 흉내내면서 해대는 기독교 해설이나 구절이 끝날 적마다 "아멘"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Tom 의 신실한 기도는 참석자 모두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Tom은 노예는 주인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충직해야 하며 주어진 숙명으로 이 세상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나 내세에는 백인과 똑같이 천당에 갈 수 있는 까닭에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숙명적 평화주의자, 낙천주의자다.

그러나 노예는 몸만 팔린 것이지 Soul은 팔린 적도 없으며 자기 외에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까닭에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매를 맞더라도 백인의 강압에 굴종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충직한 사람이다.

Uncle Tom은 백인 흑인 가릴 것 없이 탁월한 인격과 깊은 신앙심으로 여러 사람들을 감명하게 하고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만드는데 그 중에는 천사같은 마음으로 Uncle Tom 의 설교를 듣고 어린 나이에 병으로 두려움 없이 죽은 주인의 어린 딸 Evangeline도 있다.

Tom은 해방을 약속했던 착한 주인 Shelby 씨의 파산으로 아내와 자식과 떨어져 노예로 팔려갔고 성품이 착했던 돌제 주인이 노예해방 서류를 작성하던 중 악인에게 피살되자 또다시 팔리게 되는데 노예들의 운명이 자신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결정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들이다.

마지막으로 만난 주인은 악마같은 악인으로 Tom이 딴 노예를 매질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다 주인에게 매를 맞아 죽는다.

그동안 성인이 된 Shelby 씨의 아들이 Tom을 구출하러 찾아 왔으나 한 발 늦어 Tom 은 이미 죽은 후였다.

집에 돌아온 Shelby씨 아들은 Uncle Tom 을 추념하며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면서 Uncle Tom' s Cabin을 불적마다 그 분을기억하자고 말하고 해방된 노예들 전부를 유급직원으로 채용한다.

노예해방이 법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Stowe 여사가 차선책으로 궁리해 본것이 George Shelby 처럼 선의에 의한 노예주들의 자발적인 해방이었을 것이다. 쉽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150년이 지났다.

이제 Stowe 여사가 그린 Uncle Tom의 초상화는 우리들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훌륭한 순교자의 얼굴로 평가됐고 그 분의 책은 시대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는 것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감각으로 이 글의 결론은 여러분 자신이 내보라고 요청해 보고 싶다.

만일 Uncle Tom 의 판권자가 여러 분 마음대로 책의 개정판을 써 달라고 청탁한다면 과연 여러 분들의 '2010년의 Uncle Tom' 은 누구일까?

기존제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교자같이 착한 사람일까, 아니면 불의한 제도를 없애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반골기질의 말썽꾸러기 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우리 식구만 다치지 않으면 되지" 라면서 열심히 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사는 굼벵이같은 사람일까.

## 동문 시 감상

### 귀천(歸天)

천상병(상대 51)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 • .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10



모교뉴스 | 서울대 발전기금 소식

MD앤더슨 암 센터 김의신 동문 딸 내외

# 모교에 10만 달러 기부

## 동문 김의신 교수 이름의 학술기금을 조성… "가족의 힘 모아 앞으로 기금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 포부 밝혀

세계 최고의 암 전문병원 중 한 곳인 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방사선 및 내과 교수로 활동 중인 김의신(의대 60) 동문의 딸 내외(Alex Goor, Sharon Kim)가 아버지의 모교인 서울대(총장 오연천)에 학술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조성된 기금은 'Prof. Euishin Edmund Kim Lectureship Fund'로 의과대학 핵의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활동과 저명 학자 초청 강연 등에 필요한 제반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6일 오전 10시 모교 총장실에서 열린 출연식에는 김 동문의 딸 내외 대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CU (World Class University)' 초빙교수로 한국에 귀국해 있는 동문 김의신 교수 내외가 참석했다.

김 동문은 "자녀들이 수년 전부터 기부를 계획해 왔고, 이제 그 첫 포문을 열었다"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추가로 기부에 동참해 학술기금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오연천 총장은 "돈은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어려운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 뜻을 모아 기부를 실천한 것은 부친의 모교에 대한 큰 관심과 헌신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또 "앞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동문은 "미국에서 서울대에 기부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마음이 있어도 선뜻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부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너 그는 "미국에 있는 더 많은 사람이 모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 오연천, 이하 발전기금)의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은 2010년 2월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감면 법인의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 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세금 감면 혜택을 미국의 동문 사회에 더욱 널리 알려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 동문은 지난 1966년 모교 의과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80년부터 MD앤더슨 암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28년째 연구에 매진해오고 있다.

MD앤더슨 암 센터의 교수 김의신(오른쪽) 동문이 서울 모교 총장실에서 자신의 딸 내외에 의한 학술기금 10만 달러를 기부하는 출연식을 가진 뒤 오연천 총장과 함께 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1991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최고의사(The best doctors of America)에 선정됐다.

또한 그동안 발표한 논문만 350여 편에 이르는 핵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김 동문은 해외에서 한국의 이름을 빛내고,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도미하는 유학생 1천여 명의 생활을 돕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고국 정부가 두 차례 국민훈장인 동백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지난 1970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제24회 의대 동기회 관계자들이 '제20차 동창의 날' 행사를 마친 뒤 한 자리에 모였다.

의대 24회 동기회

# 모교 의대에 3천여만원 전달

### '제 20차 동창의 날' 행사 통해 이흥재·홍건 동문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 선정도

1970년 졸업한 모교 의과대학 제24회 동기회가 지난 10월 7일 모교 의대 3층 대강당에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의과대학에 기금을 전달했다.

모교 의대에 전달된 기금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이 모교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을 통해 출연한 9천여 달러를 포함해 기타 출연금 등을 합해 총 3천4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 동문 14쌍을 포함해 동문과 가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제 24회 의과대 동문들은 이흥재 동문(삼성서울병원 심장소아과)과 홍건 동문(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 Department of Radiology, Director of Nuclear Medicine)을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으로 선정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교의 미주재단은 동문들이나 기타 일반인들도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자격을 2010년 2월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취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동문들이 앞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세금 부담없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모교 관계당국과 미주의 모교 발전기금 팡계 동문들은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최지원 동문 첫 개인 기부

# 장학금 5천달러 출연

최지원(사진, 의과대학 '61년 졸업) 동문은 고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다.

최지원 동문이 2010년 7월 모교(총장 오연천)에 장학금 5천 달러를 출연했다.

최 동문은 뉴욕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을 통해 기부한 첫 개인 기부자다.

최동문은 모교 의과대학 재학시절부터 서울의 한강 백사장 천막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의료봉사 활동을 오랫동안 계속해 온 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970년대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이민사회 동포들을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또한 무료 진료와 사랑의 신장 나누기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평생을 가난하고 경제적 형편이 아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해 왔다.

최 동문은 자기 자신이 심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육체적인 시련을 겪어 오기도 했던 당사자다.

그러나 이같은 와중에도 평생을 이어 봉사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최 동문은 이번 모교 기부를 시작으로 어린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11



동문 광장 | 예일대 연수기

# 2010년 여름을 New Heaven에서 보낸 경험

이종혁(법대 4)

모교 미주 동창회와 모교 대외협력본부의 장학금 수혜로 올 여름 Yale University의 Summer Session B 과정에 참가했다.

저는 현재 모교에서 전공하고 있는 법학이 아닌 정치학과 여성학 교과목들을 수강했다. Summer Session B에 개설된 법학 교과목이 Philosophy of Law 밖에 없었던 탓도 있지만, 법학의 경직된 방법론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우선 Introduction to Political Philosophy와 Women, Food and Culture의 두 과목을 수강했다. 전자는 Department of Politics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Duke대 Danilo Petranovich 교수가, 후자는 Women's,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개설 교과목으로 Yale대의 Maria Trumpler 교수가 가르쳤다.

두 교수 모두 Yale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특이하게도 Trumpler 교수는 치즈를 생산 판매하는 농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몇 해 전부터 Yale University에서 Senior Lecturer를 맡고 있었다.

Introduction to Political Philosophy 수업에서 5주 동안 여러 사상가들의 여러 저작들을 다루다보니 상당한 강도의 독서를 요구했다.

Plato의 Apology, Crito, Gorgias, Aristotle의 Politics, Machiavelli의 The Prince, Hobbes의 Leviathan, Rousseau의 First and Second Discourse, The Social Contract, Tocqueville의 Democracy in America를 차례대로 강독했다. 인류의 지혜가 농축된 고전들을 이틀마다 한 권씩 읽었던 경험은 일찌기 겪지 못한 엄청난 고역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과 깨달음을 선사했다.

처음에는 독서량의 압박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없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요령 있게 독서하는 방법을 체득하면서 한결 가볍게 독서와 토론에 임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 토론 뿐만 아니라, Aristotle의 Politics에 관한 Essay를 작성하고 Hobbes의 Leviathan에 관해 영국•홍콩•그리스 출신 학생들과 함께 발제를 준비하면서, 소위 '우물 안 개구리' 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되며, 더욱 학문에 매진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

Women, Food and Culture 수업에서는 미학•역사학•심리학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여성과 음식에 대한 분석을 했다.

네 번의 글쓰기 과제가 기억에 남는데, 한반도 고추의 역사, 19세기 후반 미국의 한 교회 공동체에서 발간한 요리책, 20세기 미국 농장과 부엌을 찍은 사진들, 전혜성 박사와 대담 등을 주제로 글을 작성했다.

이 수업에서 Peabody Museum, Yale Babylonian Collection, Cityseed Farmer's Market, Yale Farm, Beinecke Library Cookbook Collection, Yale Art Gallery Print Collection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다양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일관되게 '여성' 이라는 숨겨진 맥락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은 대단히 흥미로웠다. 다만 한국에서도 여성학은 아직 학문영역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거나 느낀 바를 망서림없이 드러내고, 교수가 학생들의 사소한 견해 내지 논평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 앞에 겸허하고 학문 앞에 당당한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부할 때는 솔직해야 하고, 공부는 함께 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는 수업에서 배운 지식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2010년 여름을 New Haven에서 보낸 경험은 앞으로의 제 삶에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신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 세계 우수학생들과 잊지못할 추억

이찬미(문리대 3)

외교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외교관의 꿈을 키우던 차에 예일대에서 수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지만 가정 형편상 도저히 갈 수 없어 아쉬웠다.

그러다 올해 학교를 통해 미주 동창회의 장학금으로 5주 동안 예일대에서 너무나 뜻깊고 알찬 시간을 보내게 됐다.

나는 2과목의 수업을 듣게 됐는데 외교학 수업 'US strategy after the cold war' 와 교양 수업인 'Women, food and culture' 를 듣게 됐다.

먼저 외교학 수업에는 예일대 학생을 비롯한 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예일에서 수년간 가르치고 계시는 Nuno Monteiro교수님의 지도 아래 Seminar식의 수업을 들으며 한국과 사뭇 다른 열린 환경에서 각자 의견을 주고 받으며 매 수업 시간마다 주어진 과제와 관련한 논문의 주요 논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계 곳곳의 외교적 분쟁에 관하여서도 토론했다.

7월 예일대 친구들과 Six Flags 놀이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으로 왼쪽에서 네 번째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사람이 이찬미 동문.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과 중국이 미국 외교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할 수 있었고 수업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그동안 짧게나마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외교적 사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일례로 동아시아에서의 영토분쟁에 관련해 독도 문제를 예로 들며 한•중•일 그리고 러시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입장에 관해 공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

또한 여성학 수업을 통해 미국의 20세기 발전을 돌아볼 수 있었고 예일대 곳곳의 박물관과 고문헌 자료실, 그리고 예일 농장 등을 다양하게 방문하면서 강의실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수업을 경험할 수 있었다. 주말에는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도 관람할 수 있었고 놀이공원도 가보게 됐다. 많은 과제로 비록 몸은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우수한 학생들과 어울려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얻어 너무나 감사했고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 수 있었다.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신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 세계의 흐름을 체감한 기회

김예은(자연과학대 2)

이번 여름에 미주 동문 선배님들의 지원으로 5주간 Yale대에서 실시하는 Summer Session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Yale Summer Session B로 여름학기는 시기적으로 Session A와 Session B로 나뉘는데 Session A는 6월~7월 초 동안 실시되며 Session B는 7월~8월 초 동안 진행됐다.

모교 학사일정상 나는 Session B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International Student의 경우 두 과목을 듣게 돼 있으며 교과목마다 약간 차이가 나지만 한 과목당 1주일에 8~10시간 정도 수업을 했다.

과외 시간에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으며 저녁에는 Counselor들 주관으로 학생들의 교류와 만남을 도와주는 운동 경기, Movie Trip, 간단한 Party 등 다양한 활동이 제공됐다.

매 주말마다 다른 종류의 Field Trip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고 일부 금액은 Yale 측에서 지원해주어 저렴한 가격에 뮤지컬, 뉴욕여행 등을 즐길 수 있었다.

나는 이번 프로그램 중 'Introduction to evolution, ecology and behavior' 수업과 'Introduction to microeconomics' 수업을 들었다.

생물 수업의 경우 진화•생태•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나의 전공 분야인지라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인 원리부터 체계적으로 잡아가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며 다양한 예들과 추가로 주어지는 Reading Material들은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관찰력을 높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눈을 뜨게 하는 유익한 자료였다.

개인적으로 매 수업시간 나눠주는 흥미로운 주제의 Article들을 읽으며 생태, 행동분야에 흥미를 키우는 기회가 됐다.

'Introduction to microeconomics' 수업의 경우 교수님께서 이 수업을 오래 해오신 분이라 내가 경제를 처음 배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려움 없이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명쾌한 개념적 설명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나아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 현상들의 원리를 수업 때 배운 기본 개념과 연관 지어 설명해주어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사건을 대할 때 경제적 Insight를 가지고 보는 경제적 Mind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두 교수님 모두 학생들과 소통을 매우 중요시 했으며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 같이 걸어가는 쌍방향 수업이라 매우 좋았다.

이번 Summer Session에 참가하며 모교의 교육 수준이 절대 외국 유수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느꼈다.

생물 수업의 경우 본교의 수업에서 더 깊게 전문적으로 배우는 부분도 상당수 있었으며 본교 교수님들의 뛰어난 실력과 열정은 Ivy League인 예일대에 견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느꼈다.

다만 다양한 추가 Material을 통한 실제 상황 속에서의 응용과 감각 익히기, 최신 소식에 관한 자료 제공은 모교가 약간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또한 생물 수업의 경우 10명 남짓한 인원이었고 경제 수업의 경우 정원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수강 인원이 30명이었는데 이러한 소수의 수강 인원은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학생 한 명에 대한 교수님의 Care를 높여주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의지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

모교에서 필요에 따라 몇몇 수업은 좀 더 소수로 구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Yale대 재학생 및 세계 각국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에서 대학생을 선발해 국가 지원으로 단체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내가 들은 경제 수업에 많은 중국 학생들이 있었다)과 나란히 수업을 들으며 모교 학생이 외국 학생들 사이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두각을 나타냈으며 세계 속에서 자랑스런 서울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듣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전 세계의 뛰어난 학우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갖추어야 할 태도, 세계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었다.

5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학생활을 미리 맛보는 좋은 경험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내게 이러한 학업적 지식과 인생에서 값진 경험을 쌓을 기회를 허락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의 은혜에 깊이 감사 드린다.

10□□3~14□:Aug_Rev 2010-10-12 □□ 2:28 Page 12



회고록 | 남한에 정착

# 건국 소용돌이 속에서의 새터민

이용락(공대 48)

<이 글은 나의 회고록의 일부로 동창회보 2010 년 4월호 게재분의 속편임>

우리 가족이 북조선 성진항에서 조금 떨어진 일신(日新)을 떠나 3일 동안의 동해 격랑 속에 통통배로 남한에 도착해 포항을 거쳐 서울에 왔을 때는 1946년 8월 초순이었다.

당시 서울 황금정(黃金町, 지금의 을지로)에는 전차가 다니고 있었으며 우리 집에서 황금정 길을 건너 남쪽에 본정(本町 지금의 충무로), 더 남쪽에는 남산이 있었다.

부엌도 없는 집에서 어머님은 현관을 앞으로 연장해 임시로 만든 부엌에서 연탄불을 밖에서 계속 태우면서 취사 및 기타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 자유를 찾아 탈출한 남조선에서 겪는 시련 속에서 우리 식구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 당시 남조선은 미 점령군 24군단 사령관 하지 중장(General Hodge)의 관할하에 있었다.

1945년 9월 12일 Arnold 소장이 군정청 장관으로 1947년 6월 정권 이양 때까지 미군정청 기관들은 시내 여러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제 식민시대 한반도는 일본 본토 상품을 소비하는 시장에 지나지 않았기에 해방후에는 물자가 많이 부족했다. 당시 남조선에는 식량, 의류 등 필수품이 부족해 거의 미국의 공식 원조품, 비공식적으로 굴러 나오는 군용물인 'PX 물건' 으로 충당됐으며, 거리 골목 마다 잡화상이 난무해 있었고, 생산공장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다. 기껏 떡방아간이 여기 저기 보일 뿐이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미 군복을 검정색으로 염색해 입고 다녔다. 시민들 경제생활은 대체로 곤궁했다. 쌀은 귀했고 미군정 당국의 구호물자로 많이 유통된 밀가루로 일반인들의 주식은 수제비였다. 내가 북조선을 떠날 때의 주민 주식은 '콩떡(大豆떡)' 이었으나 외가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은 특별대우를 받아 콩떡은 거의 먹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매일 콩떡을 먹어 설사도 많이 해 고생했다.

남한에 와 일반인들보다 어려운 월남 피난민생활이 바로 시작됐고 매일 먹은 수제비였지만 다행히 별로 물리지는 않았다. 남한에 우리는 별로 친척이 없었다. 서울에는 의사였던 먼 친척 할아버지가 계셨지만 우리의 경제문제에 도움줄 수 없었고, 이미 작고하신 넷째 숙부의 부인이신 숙모가 유복자를 데리고 해방 전부터 서울에 살고 있었다.

미망인 숙모는 우리가 오히려 도와야 할 형편이라 북조선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온 약간의 제산을 나눠주며, 자활자생하기를 바랐다.

서울에 온 후 나의 첫 과제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일정 때의 학제는 중학 5년을 마치고 경성제국대학에 진학하려면 예과 2년을 마치고 학부 3년, 도합 10년의 과정을 수료해야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중학 5년을 마치고 전문학교에 진학하면 3년과정으로 도합 8년간의 공부를 해야 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기 1년 전 중학교가 4년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나보다 1년 선배가, 나보다 2년 선배와 함께 중학 졸업장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도 중학교 졸업반에 있을 때 8.15 해방을 맞은 후 만주 길림에 새로 신설된 조선인 중학교에 편입해 4년제 중학교 졸업장은 가지고 있었다.

배재중학을 졸업하게 된 연유는 이러하다. 서울도착 며칠 후 아무 목적지도 없이 빈화가 본정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 때 만주 길림중학 시절 1년 선배던 김재영(서울대의대 졸업, 현 서울순천병원장)씨를 만났다.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다. 남한 그 넓은 서울 한복판에서 아는 사람, 그것도, 길림중학 동문을 만나다니! 선배는 "좀 먼저 욕지를 통해 38 선을 넘었다" 면서 "… 지금 나는 고급중학교 보결시험 원서를 받으러 가는 길" 이라고 했다.

"나도 한장 갖다 달라" 고 부탁했다. 배재중학교 고급중학 5학년 보결시험에 응시, 함께 합격해 5학년 동급생으로 편입해 당시 미군정령으로 바뀐 6년제 배재중학교를 졸업했다. 하여, 나는 이상재, 서재필, 이승만 박사 등 독립운동 선각자들이 배출된, 1885년 8월 미국 감리교 선교사 Appenzeler 가 설립한 배재학당의 후신에서 수학한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다.

배재중학 편입은 8.15 해방 꼭 1년 되는 때라 서울에 오기 전 1년간 남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다. 나로서는 공산주의의 지배 내지 영향을 받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자본주의 강대국인 미합중국 지배하의 남한에서 살게 된 것은 크나큰 환경변화였다. 그래서 그동안 남한에서만 살아온 사람들과 비교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나름대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

당시 남한에는 1945년 1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돼 12월 27일 미국, 소련, 영국 외상들의 3상회의 결의에 따라 1946년 1월 19일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협상하고 있었다.

그 때 내 눈에는 제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보다 소련의 스탈린이, 2 차대전 종전 처리과정에서 훨씬 고단수 정치적인 식견과 수완을 발휘한 것 같았다.

전 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은 2 차대전이 다 끝난 시점에 죄수들을 동원해 일본전에 참전해 종전 불과 며칠만에 북조선에 진주, 북한 전역에 김일성을 앞세워 친소 공산체제를 확립해 가는 중이었다. 반면 미 트루만 정부 두뇌들은 패전 일본의 점령에 만족하고한반도에 대해서는 초기에 일관된 정책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군은 9월 8일에야 인천에 상륙했다. 북조선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자는 꿈쩍도 못한 반면 당시 남조선은 한마디로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독립운동 해외동포들의 구심점이었던 상해 임시정부및 광복군은 대일본전 승전 당사자로 취급되지 못해 이미 해체됐고 미군 점령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처지였다. 해방 조선반도 치안을 유지하고 새 나라 건국에 역할을 하고자 했던 여운형(呂運亨 1886~1947.7.19) 씨를 지도자로 하는 좌우합작 건국운동을 펴던 건국준비위원회도 해산됐다.

그래서 당시 서울에는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건국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우익진영으로는 국내 정치인사로 구성된 한국민주당(한민당), 상해임시정부 요원 중심의 독립촉성국민회(독촉), 좌익으로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2년간 수학한 박헌영(1950~1955.12.15일)과 공산주의 신봉자들인 남조선 노동당 등이 기억된다.

거리 벽보에는 각종 단체의 성명문 등이 만발하고 있었다. 어떤 것은 우익, 어떤 것은 좌익단체의 것들이었다. 바야흐로 다양한 이념이 만개해 '백화쟁명' 하던 때였다.

한편, 좌우익 사람들이 함께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는 터라, 북조선에서의 상황과 전혀 달랐다.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자유로운 세상이 전개될 조짐 같아, 이를 먼저 내다보신 아버지의 관찰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질서한 남조선의 사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술한 모스코바 3상회의 결과 미소공동 위원회에서는, 우리민족이 자주독립 능력이 생길 때까지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발표됐다. '탁치안(託治案)' 이 발표되자, 처음에는 좌우익 모두 일제히 반대를 외쳤다. 나도 만주 봉천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만세' 의 현수막을 보았을 때의 무한한 감격이 머리 속에 생생한 때라, 신탁통치 안에 절대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을 지도자로한 우익은 격렬한 반탁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이에 남한의 좌익 지도자들은 돌연히 신탁통치 찬성으로 180도 태도를 바꾸었다. 이같은 '찬탁운동' 은 또한 북조선의 외침과도 일치했다.

북조선및 남한의 좌익세력에게는 민족과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에 맹목추종으로 판단돼 재삼 실망했다. 세상에서는 한때 찬탁하는 자는 '좌익' , 반탁하는 자는 '우익' 으로 불렀고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다.

북조선에서 전개되던 상황을 목도하며 탈출해 온 나로서는, 남조선의 군정청은 너무나 무력하게 보였으며, 고의적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좌익단체들이 준동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듯해 못마땅했다.

얼마 뒤 해방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수립된 단일 정부가 없는 상황이라 좌익과 우익단체들은 각각 기념식을 별개의 장소에서 거행했다. 골수좌익 및 온건좌익은 남산광장에서,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을 지도자로 한 우익단체들은 서울운동장에서 별도로 가졌다. 이념 성향이 다른 두 단체는 기념식이 끝나면, 제각기 거리를 시위행진했다.

이들은 시내 북관을 향해 행진하다 보니, 같은 거리를 각각 반대방향으로 행진하게 돼 중심가인 우리집 부근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미군정청은 무력하게 대처했다. 이는 미군정청의 인도주의, 공평주의, 자유사회 등 인간 본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부산물임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중 우익 사상의 사람들은 "미군정청의 무질서 방임정책은 미국무성에 좌익 분자들이 많은 결과" 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48년 대한민국 탄생 뒤 "미국 트루만 행정부가 일본과 대만을 연결하는 극동지역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선언의 결과 민족적 비극 6.25 동란을 유발했다" 고 불만했다.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를 악화시킨 일 중 하나가 미군정청이 1946년 6월 19일 내놓은 문교정책이었다.

즉 미군정청의 '국립서울대학교 법안(國大案)' 은 일정 때 설립된 경성제국대학과 6개 전문학교(경성의학전문, 경성법학전문, 경성치과의학전문, 경성경제전문, 경성공업전문, 수원농림전문)를 통합한 '국립서울대학교 안' 이 발표, 8월 23일 국립서울대학교 신설을 강행하자 좌경교수와 학생들이 주도한 고등교육기관의 축소, 미국인 총장 및 행정담당 대학 운영자치권 박탈과 각 학교의 고유성을 저해한다는 명분하에 국대안 반대와 동맹휴학 운동이 1년간 계속돼 4천956명의 학생이 제적되고 교수 380여명이 해임됐다 1년후인 1947년 8월 14일 3천518명의 제적학생의 복학 허용으로 일단락됐다.

이 국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일정 때 유일의 최고 학부인 경성제국대학(해방후 '제국' 을 삭제)의 학생들이 전문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자부심을 가졌다고 들었다. 따라서 경성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국대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됐다. 그렇다면 다른 전문학교 학생들은 국대안에 찬성했을 테지만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대안을 반대했다고 한다. 급기야 9개 단과대학에서 일제히 반대운동이 일고 서울여의대, 연희대, 한양대, 동국대, 국학대와 중동학교로 인천,개성,춘천, 대구,지방교등, 57개교 4만명 맹휴(동맹휴학)를 감행했다. 이러한 동맹휴학 사태는 아래로 중학교까지 전파됐다. 많은 중학교에서는 좌파세력의 영향으로 우익 성향의 교직원을 배척하는 동맹 휴학이 서울에 만연돼 있었다. 그런가 하면 배재중학은 예외적 경우로 우익학생들이 주동이 돼 중립 내지 온건 좌익성향의 교직원을 배척하는 동맹휴교가 오래 계속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2년 재학중 나는 실제 등교해 공부한 시간은 매우 적었다. 당시 어린 소견으로도 전반적으로 정치세력들이 학생들을 이용해 교육기관이 마비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시절을 번영하듯 하루는 전차를 타려 했더니 '제네스트' 라는 큰 표어가 계시판에 성명서와 함께 붙어 있었다.

알고 보니 제네스트는 General Strike를 줄인 단어로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항간에는 좌익 세력의 소행이라고 했으며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혁명세력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행한다고 들었고, 나도 그렇게 느꼈다.

이같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아버지는 여러 사업을 시작해보려 하셨다. 그러나 하시는 사업마다 필요한 여건부족으로 실패했다.

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그 때 북조선에 잔류를 결정한 셋째 3촌이 원망스러웠다. 두 형제가 합심했다면 피난살이에서도 아버지의 사업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나는 마음 속으로 "나도 무엇인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 다른 것은 별 할 일이 없었다. 당시 많이 하는, PX에서 나온 물건을 중간 도매인으로부터 받아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은 큰 자본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됐다.

나는 장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호에 언급한 나의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이진신' 과 함께 한 '뻥튀기' 장사 경험이다.

더운 날 골목에서 어린애들이 시원한 냉차를 팔듯 나는 '뻥튀기' 를 뻥튀기 아저씨로부터 받아 작은 봉투에 나누어 담아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팔아 본 일이다.

물론 그 때는 순전히 재미로 했다. 그러나 행인들이 잘 사주어서 제법 이윤도 남긴 것으로 기억난다. 그러나 이번에 구상한 사업 은, 곤궁한 집안 가계를 돕기 위해 시작한 심각한 사업이었다.

사업은 미군부대의 물건을 받아 파는 것인데, 자본이 부족해 자본이 작게 드는 양담배(Camel, Lucky Strike, Palmal 등)를 선택했다. 그런데 일반 시장에는 기득권자들의 텃세 속에 끼어들 수 없으므로, 우리 같은 뜨내기 상인은 어떤 넓은 공터에서 보따리를 놓고 다니며 물건 살 사람을 찾곤 했다.

장사 첫 날은 몇 보로(한 보로는 12갑)를 팔았다. 다음 날 내 옆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어떤 패거리의 습격을 받아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고 있는 동안, 물건을 몽땅 이 패거리들이 탈취해가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난무하던 깡패들의 소행이었다. 조금 뒤 나에게 어떤 고객이 나타나 값을 흥정하고 있는 동안, 모인 사람들 틈에서 어떤 사람이 내 보따리를 툭 치는 통에 담배 한 보로가 보따리에서 빠져나오자, 15세 정도 가량의 아이가 이를 도둑질하려 해 보따리를 움켜쥐고 결사적으로 주위의 군중을 치고 빠져나갔다.

안전 지대에 가서 살펴보니 담배 몇 곽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이 일 후 나는 장사를 그만 두었다.

이상과 같은 사회 혼란과 우리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형편에서 서울에 온지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정치적 혼란은 더 심각했다. 이곳 저곳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암살이 자행됐으며 나의 생각에 우익 또는 우익에 가까웠다고 생각되던 우파의 송진우(1890~1945.12.30)씨, 그리고 양반가문 자제로 일찌기 집안의 노복을 해방시켰고, 모스크바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에 가입한 전력의 진보적 사상가나 단일정부로 건국의 꿈을 펴던 기독교인이며, 준수한 외모와 달변의 여운형(1886~1947.7.19일)씨와 그 외 많은 인사가 암살됐다.

한편 국제연합(UN)으로 이관된 한국독립 문제는 신탁통치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곡절 끝에 한반도 전체에서의 선거를 통한 독립국을 수립하도록 하자며 1947년 11월 UN 총회 결의에 따라 남북한 전체 총선거를 유엔위원단(UN Commission) 주관으로 실시하는 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소련과 북조선은 이 결의안에 끝내 반대해 UN위원단이 38 도선 이북 입국을 거부했다. 소련의 야망에 비춰 이는 당연히 예측된 처사로 보였다. 왜냐하면 UN결의대로 총선거가 시행되면 북조선의 김일성 집권은 소련으로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하에 UN 총회는 UN 위원단을 반아들이는 지역에 한정해 자유선거를 실시케 하는 또다른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때를 기해 남한의 우익진영 지도자들 중 의견분열이 일어났다. 이승만 박사를 지도자로 한 우익 진영에서는 남조선 단독국가의 창립을 찬성했고, 김구 선생을 지도자로 한 다른 우익진영에서는 38 도선 이남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다.

1948년 4월 19일 김구 선생과 김규식씨가 김일성 김두봉과 4자 남북협상차 입북했다가 5월 5일 냉혹한 분단의 깊은 벽을 보고 빈 손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김 구 선생의 뜻에 공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돌간 갈등으로 한 때 사회는 더욱 혼란했다.

당시 어른들의 의견은 "김구 선생은 애국자, 확명가지만 결코 정치가는 못된다" 라고 평가했다. 나도 이러한 논리에 공감했다.

이미 소련과 북조선 지도자들의 공산정권 수립 야심 때문에 김 구 선생의 순수한 애국심에 발로한 남북한 통합 단일정부의 뜻이 김 일성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김구 선생은 김일성과 만나고 돌아온 후 큰 실망 속에서 경교장에서 운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국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적대적 이념을 가진 정부(남한은 1948년 8월 15일, 북조선은 9월9일)가 들어서 좌우합작으로 한반도 단일정부의 건국을 꿈꾸던 중간 세력은 설 땅을 잃었다.

1948년 5월 국회는 유진오의 원래 초안이던 의원내각제와는 다른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통과시키고 국회는 제헌국회의장이던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1948년 8월 15일을 기해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이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나도 그때 서울 운동장에서 있었던 8.15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대한민국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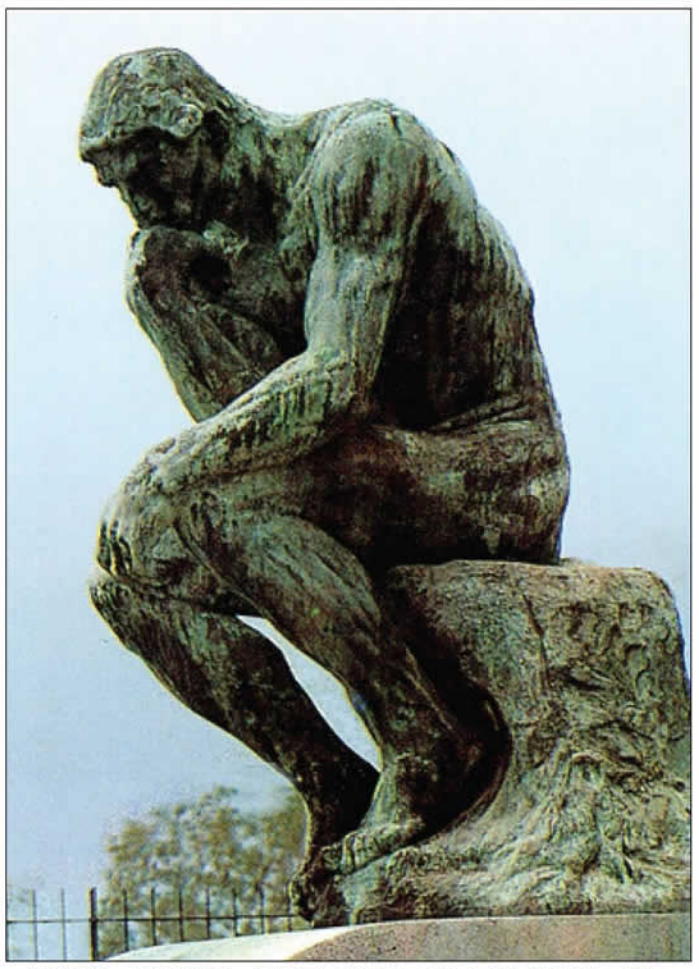
10□□ 15~22□:Layout _Aug_Temp 2010-10-12 □□ 1:37 Page 1



세계명화 감상<8>

# 로댕(François Auguste René Rodin 1840~1917)과 조각 작품들

칼 라이스의 시민들(1889, 칼 라이스, 프랑스)



생각하는 사람(1902, 청동과 대리석 조각,로댕 미술관,파리)

## 현대 조각 미술의 선구자,상징적 예술가

### 미술대와 사롱에서 퇴짜,독학으로 재능키워

임이섭(미대 54)

오귀스트 로댕(François Auguste René Rodin 1840~1917, 오른쪽 얼굴사진)은 현대 조각 미술의 선구자로 특히 그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 처럼 생각하는 현대인의 상징적 예술가가 되었다.

19세기 낭만주의 미술을 계승하면서 20세기로의 전환점에서 프랑스를 휩쓸었던 새로운 미술 운동 속에서 현대 조각가로 우뚝 섰다.

1840년 파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여 미술 수련을 받았으나 미술대학이나 사롱에서 거절당해 조각 실습장에서 독학으로 그의 재능을 발전시켰다.

로댕은 로마와 플로렌스에서 미켈란젤로의 예술에 매혹되고 흠모해 미켈란젤로 예술의 비밀을 탐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는 점차 유명해지면서 많은 청탁을 받아 분주한 조각가의 생애를 보냈다.

그의 여자관계도 복잡하고 분주했다.

1864년 그의 작업장에서 만난 로즈 뷰레트는 로댕의 모델이

돼주기도 했지만 로댕은 여러 명의 여인을 거친 뒤 52년 이후 로즈와 결혼했으나 그 해 77세로 사망했다.

왼쪽 작품이 'The Kiss (1880, 72" x 44" x 47" 로댕 미술관, 파리)' 이고, 오른쪽 작품이 '지옥의 문(1880~1917 로댕 미술관, 파리)' 이다.

### 지옥의 문

1880년 파리의 장식예술 미술관에서 청탁을 받고 이 작품을 위해 평생 노력한 대작이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 있다.

이 작품의 원천은 단테의 '신곡' 에 나오는 '지옥문' 을 구상한 것인데 180명의 인물 조각이 등장하는 위대한 서사시적인 작품이다.

단테의 작품 속의 인물들을 그의 상상력과 창작력을 발휘해 입체적으로 표현한 당대 최고의 조각 작품이 된 것이다.

이 작품 안에서 그 유명한 조각 '생각하는 사람' 과 'Kiss' 의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 작품 '생각하는 사람' 은 그의 작품 '지옥의 문' 의 윗 부분 중앙에 자리 잡은 조각이다.

원래 제목은 단테를 묘사해 '시인' 으로 명명한 27.5인치의 작은 조각 작품이었지만 후에 크게 다시 제작했다.

반드시 단테를 묘사했다기보다 로댕 자신의 명상, 또는 아담의 고뇌라고도 하며 그 후 철학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돼 우리 모두가 공명하는 생각하는 조각이 된 것이다.

이 복제품은 오늘 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한 조각 작품이 돼 있다.

### The Kiss

이 작품도 로댕의 대작 '지옥의 문' 속의 한 조각품으로 불륜적인 인간의 정욕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후에 독립된 로댕의 명작이 됐다.

원래는 단테의 작품 속의 'Paolo' 와 'Francesca' 를 주인공으로 한 조각인데 너무도 사실적이고 정욕적이어서 평론가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자연주의적인 로댕은 개성과 감성을 강조해 육체의 모든 지체로 주제를 강조하는 이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 칼 라이스의 시민들

로댕의 또 하나의 명작이다. 1347년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때 프랑스의 항구도시 칼라이스에서 여섯명의 시민들이 영국의 침략에 항거해 자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일화를 기념해 제작했다.

주제 의식을 강하게 표현하는 로댕은 수천장의 스케치로 준비해 각 인물의 얼굴 표정으로부터 비롯어진 동작과 의상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심경과 애국적인 희생정신을 극히 극적이며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기념비는 보통 승리와 성취를 자축하는 것인데 이 동상은 패배 속에 칼 라이스 시민의 위대한 희생을 유니크하게 표현한 조각 작품이다.

10□□ 15~22□:Layout _Aug_Temp 2010-10-12 □□ 1:37 Page 2



지역 소식

# 샌디에이고 • 남가주

**샌디에이고 동창회**

샌디에이고 동창회(회장 민영기)가 지난 9월 4일 샌디에귀토 카운티 파크에서 '2010년도 동창 야유회' 를 가졌다. 이 날 60여명의 동창과 가족들은 오랫만에 야외에 나가 서로의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 남가주 의대 동창회

←남가주 의대 동창회(회장 고용규)가 지난 지난 9월 28일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선후배 교류의 밤' 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동문 가족들이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더욱 활발한 교류를 다짐하고 있다.

↓정기연주회를 갖는 음대 동창회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주호섭 외 박혜란 부회장, 홍선례 회장,이혜경 서기, 김계한 문화부장

**남가주 동창회**

## 이사회 열고 하반기 일정 토의

남가주 동문회(회장 김은종)가 지난 9월 9일 서울대 미주센터에서 이사회를 갖고 하반기 행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문회는 9월 25일 연례 커뮤니티 전문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펴기로 하고 의사•변호사 •회계사•간호사 등 30여 명의 전문직 종사 동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키로 했다.

이 봉사활동은 동문 전문가들이 우리 동포및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 무료 전문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남가주에서 가장 모범적 봉사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의대 출신들의 무료 건강 검진및 진단을 비롯한 독감예방 접종으로 약 3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밖에도 광견병 예방을 위한 무료 접종 행사도 펼쳐지고 있다.

<홍선례>

## 음대 '2010년도 정기연주회' 준비

음악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홍선례)가 10월 23일 LA 다운타운의 콜번스쿨 지퍼홀에서 '2010년도 정기연주회' 를 개최한다.

올해 연주회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주일엽씨와 첼리스트 이방은씨, 소프라노 곽현주씨 등 동문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해 시저 프랭크의 '패니스 엔젤리커스', 그리그 소나타 45번, '첼로 콘서트 85번 등을 연주한다.

또 UCLA 한국음악과 학생들과 김동석 교수가 찬조 출연해 국악공연을 펼치며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신예 음악가들로 구성된 남성 4중창단이 가곡, 팝송 등 대중적인 음악을 불러 흥을 더하게 된다.

홍선례 회장은 "남가주 음대 동창회는 동문들간 친목과 결속, 유대 강화를 위해 연주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음악대학 유학생들을 지원하고 신인 발굴을 위해 유학생들이 직접 출연하는 무대와 그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을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공연은 동서양의 음악이 어우러진 풍성한 연주회가 될 것" 이라며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음대 동창회 정기연주회는 동포사회에서도 큰 인기로 특히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UCLA 한국음악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10□□ 15~22□:Layout _Aug_Temp 2010-10-12 □□ 1:37 Page 3



지역 소식 | 워싱턴 • 북가주

워싱턴 동창회

## 공순옥 회장 취임식및 장학금 전달

워싱턴 지역 동창회가 신임 회장으로 공순옥 회장(간호 66,두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에 대한 취임식을 가졌다.

워싱턴 동창회는 지난 9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송수 회장을 제31대 회장으로 인준했다.

워싱턴 동창회는 이와 함께 송상희 부회장, 유홍열 부회장, 정상목 회계, 정상근 홍보부장 등의 임원을 인준하고 앞으로 1년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공순옥 신임회장은 인삿말에서 "모교와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젊은 후배들의 모범이 되는 겸손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공 회장은 이날 임원 및 이사들과 함께 동문 연락처를 정리하고 모교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또 후배들의 미 주류사회 네트워킹을 위해 하버드 대학 동문과 교류 방안도 검토했다.

이밖에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동창회로 거듭나기 위해 불우이웃 돕기를 비롯해 장학금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 회장은 현재 하워드 카운티 한인회장을 맡고 있다. 메릴랜드대 간호대학에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정신 신경과 의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 병원 재단 이사이며 동시에 주 정부 정신건강 정책부 자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대, 성균관대, 충남대 대학원 학생들의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워싱턴 동창회는 이번 학기에 조지 메이슨대에 입학한 최원정 양에게 1,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 회장은 "새 임원진을 구성한 동창회가 첫 사업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 회장은 이어 "장학생 기준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학생"이라고 최 양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주회가 끝난 뒤 모교출신 음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가운데가 신수정 동문

북가주 동창회

## 신수정 동문초청 장학 음악회개최

북가주 동창회(회장 홍성제)가 한인 2세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피아니스트 신수정 초청 음악회'를 지난 9월 SF Herbst Theatre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700여명의 관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허라이즌 하모니(Horizon Harmonies)'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는 동문 신수정 피아니스트를 특별 초청,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쇼팽의 '발라드 1번',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피날레' 등을 연주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직접 북가주를 방문한 신 동문은 모교 음대를 수석 입학·졸업한 재원으로, 모교 음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연주자다.

황지인 첼리스트, 박희경 바이올리니스트, 안영실 피아니스트 등 북가주에서 활동하는 모교 동문 연주가들도 참여, '백조(Le Cygne)' '시편(Psalm)' 등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했다.

이 날 '피아니스트 신수정과 함께하는 Horizon Harmonies'는 신 동문의 이름을 북가주 동문들은 물론 동포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킨 성공적인 음악회였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펼쳐 보인 힘 있는 그의 연주는 물오른 30대 연주자의 정열과 깊이 있는 50대의 연주자의 모습을 합친 모습이었다는 평이다. 또한 모교 음대출신의 음악인들로 구성된 베리타스 앙상블이 펼친 연주도 북가주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악회였다는 것이 관객들의 반응이다.

1~2 부로 나눠진 이번 연주회에서 연주자들은 고전부터 현대까지의 레파토리를 포함하는 시대를 넘어선 하모니 등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연주를 맛볼 수 있었다.

1부 마지막에 펼쳐진 모교 음대 출신 작곡가 안진(버클리 박사과정)씨가 만든 '소금인형'은 피아노 연주의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도구를 이용, 피아노 본래의 소리가 아닌 변형된 음이 전해지는 등 거문고의 소리를 듣는 느낌마저 들었다.

2부 들어 시작된 신 동문의 연주는 아름다운 피아노의 선율과 황지인씨가 연주한 첼로의 부드러운 음색이 맞물리면서 베토벤의 음악을 더욱 가치있고 품위 있게 연출해 냈다고 한다.

관객 모두 숨죽인 가운데 펼쳐진 신 동문의 연주는 애절함이 깃들면서도 경쾌함을 함께 가미한 것이 특징인 듯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듯한 모습으로 펼친 이번 음악회는 신 동문 스스로도 만족감을 표시할 정도였다는 평이다.

특히 Horizon Harmonies의 절정을 보여준 것은 마지막 두대의 피아노 선반 위에 40개의 손마디가 현란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보여준 '동물의 사육제'의 마지막 곡인 '피날레'였다는 것.

샌프란시스코시와 시 의회는 지난 9월 28일을 '신수정의 날'로 공포하고 개빈 뉴섬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한인 커미셔너인 박정희씨를 통해 '신수정의 날 선언문'을 신 동문에게 전했다.

신수정 피아니스트는 "팔로알토에서 9년간 거주한 적이 있어 북가주는 낯설지 않다"며 "많은 관객앞에서 유능한 후배들과 함께 연주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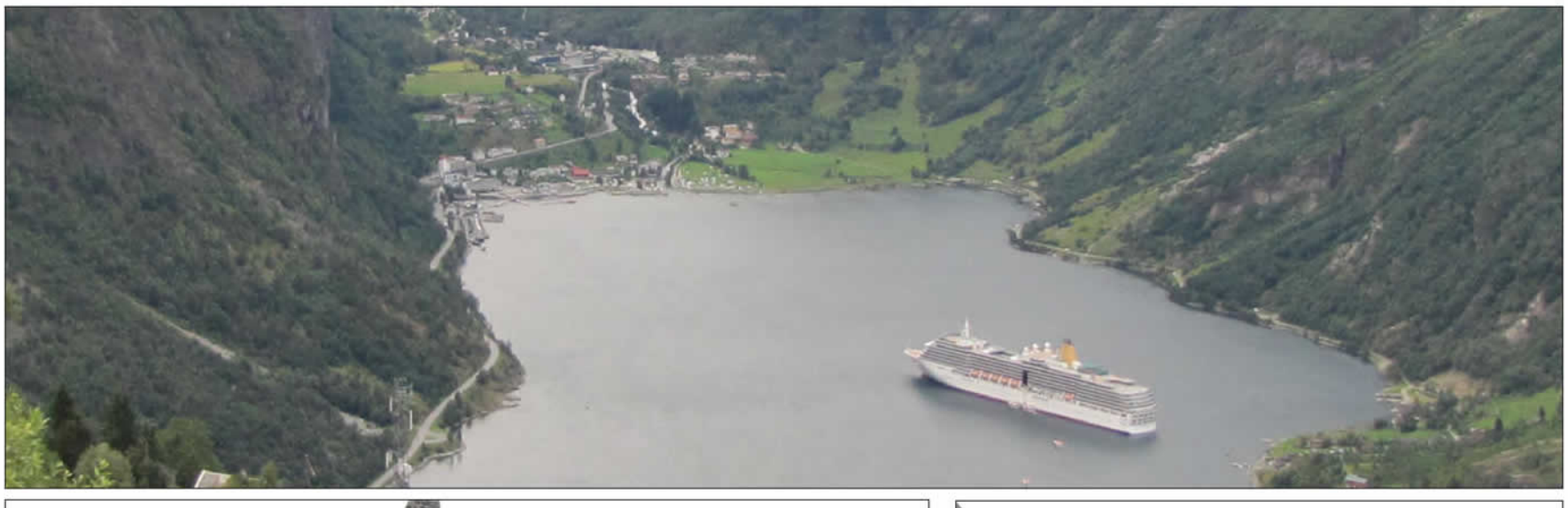
북가주 동창회에서는 이날 행사에서 모아진 수익금을 북가주 지역 한인 2세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신수정 동문이 황지인 첼리스트와 함께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하고 있다

10□□ 15~22□:Layout _Aug_Temp 2010-10-12 □□ 1:37 Page 4



지역 소식 | 시카고



↑Vigeland조각공원에서 일행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노르웨이의 Geiranger협만 타운과 ↑↑Briksdal빙하폭포 장면이다.

시카고 골든 클럽 북유럽 여행

# 환상의 여정, 흡족했던 10박12일

'시카고 골든 클럽(회장 박영규, 농 57)' 이 스캔디나비아와 러시아를 순방했다. 지난 8월15일 시카고에서 SAS 항공편으로 출발한 20명은 16일 덴마크의 Copenhagen에 도착, 뉴욕에서 온 이전구 동문(미주 전동창회장)일행 8명과 합류, 28명이 10박12일 환상의 여정에 올랐다.

첫날 오후 코펜하겐 항만, 시청광장 주변의 고풍과 안델센, 키에르케고르의 동상을 보고 덴마크 관광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한 반면, 노르웨이 서부 협만(fjord)들과 산악의 터널들을 관통하며 수도 Oslo에 이르는 3박 4일간의 여정은 이번 여행의 첫째 하이라이트였다. 노르웨이 서해안 제2도시 Bergen부터 시작된 자연경관은 Geiranger 협만부터 '독수리의 길' 에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특히 '요정의 길' 에서는 '솔베이지의 노래' 유래와 경관에 어울리는 Grieg 작곡 Peer Gyunt 음악을 들으며 감동에 젖었다. 세계 명소들을 여행해 본 회원들도 노르웨이 내륙 코스의 구비마다 펼쳐지는 절경에 감탄을 연발했다.

오슬로에서는 노벨상 시상 장소인 시 청사, Gustav Vigeland 조각 공원 등을 관람하고 스웨덴의 수도 Stockholm에서는 바이킹 시대의 박물관, 예술의 전당으로 꾸민 시청사(Blue Hall)를 관람했다.

스톡홀롬에서 발틱 해협을 건너는 유람선에서 1박하고 도착한 핀란드의 Helsinki에서는 바이킹과 슬라브 양대 문명에 끼어 생존해 온 핀란드 민족음악 Finlandia 작곡자 Sibelius 기념공원, 종교 유적들과 헬싱키 방어 요새인 Suomenlinna 섬의 유적들을 볼 수 있었다.

핀란드에서 항공편으로 Moscow에 도착한 일행은 비밀의 상징인 크레믈린 성곽 내부의 건물들과 붉은 광장, 모스크바 대학을 방문하고 75m 지하의 대피소를 겸한 지하철을 시승했다. 이어 St. Petersburg로 비행해 제정 러시아 말기 피터 대제의 겨울궁전(Hermitage), 카트리나 황후를 위한 여름궁전을 비롯한 스케일이 방대하고 사치가 극에 달한 유적과 박물관을 관람했다

이번 여행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단연 제정 러시아의 수도로 유럽 강대국들의 예술과 건축을 확대 모방한 세인트 피터스버그였다. 관람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곳에서 아쉬운 발길을 돌려 8월 26일 코펜하겐 공항을 다시 거쳐 귀환했다.

이번 여행 출발 전에 러시아의 산불 등, 환경 조건에 우려를 하며 모스크바 일정 취소 논의까지 대두했었으나 모든 일정에 기상이 쾌청했고 모스크바에서는 전혀 환경, 범죄 문제가 없어 안전하고 흡족한 여행이 됐다고 일행은 평가하고 있다.

<글=이윤모 동문, 사진=노재욱 동문>

↓Briksdal의 빙하폭포로 가는 길은 이같은 전동차로 이동해야 했다

## 여행은 역시 좋은것,높아진 고국위상 재확인

이번 여행에서 다시 느낀 것은 우선 '여행은 역시 좋은 것' 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새로운 사실에 접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이다.

또 하나, 각 지역마다 우리 고국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의 경우 공항에서부터 숙소에 이르기까지 삼성·LG·현대 등 고국 기업의 대형 간판들이 주욱 늘어서 있는 사실에 놀랐다. 특히 공산권의 본거지인 러시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었다.

과거 일본의 Sony나 도시바, 또는 필립스 등 유럽의 광고들이 지배하고 있던 곳을 우리 기업들이 밀어내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전부터 들어 왔으나 직접 확인하고 보니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한층 더 느끼게 된 값진 여행이었다.

각 지역 관광 가이드 또한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아마추어 뜨네기 같은 가이드가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인품까지 갖춘 전문가들이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일행의 가이드는 각 지역 총 5명으로 모두가 그 지역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30~40대 한인 여성들로 지역 언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대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제부터는 관광 가이드도 전문인 시대에 접어들어 어중간한 뚜쟁이식 가이드는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것은 요즈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여행업체의 배려로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제고의 크기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 골든클럽회장 박영규>

10□□ 15~22□:Layout _Aug_Temp 2010-10-12 □□ 1:37 Page 5



여행기 | 북유럽과 러시아 기행

# '솔베이지송' 본향과 '바이킹유적'을 보고

이윤모(농대 57)

시카고 골든 클럽이 지난 9월 발틱해 북유럽과 러시아 지역을 관광했다. 다음은 이 중에서 노르웨이와 북 유럽 지역에 대한 여행기를 간추린 것이다.

그 외 이번 여정에서 특히 모스코와 센트 피터스버그 부분은 다른 동문들도 여행, 기행문을 쓴 바 있어 생략한다.

<필자 주>

지난 8월 15일 밤 10시 시카고에서 SAS 항공편의 협소한 뒷좌석에 탑승한 일행 22명이 8시간 동안 '새우 잠'을 설치며 16일 오후 1시반 Copenhagen에 도착했다. 미리 도착한 뉴욕 이전구 동문 일행과 현지 안내원을 만나 전용 버스로 코펜하겐시내로 향했다.

'인어 공주' 동상이 있었다는 항구의 해변에는 "인어 상을 중국에 대여했다"는 풋말조차 없이 텅 비었으나 요트들과 크루즈 선박이 이국의 항만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시청 광장에서 유럽을 느끼며 안델센의 동상, 크리스천 보그성 주변의 그룬드비(덴마크 국민정신을 깨우친 교육가), 철학자 키엘케고르의 동상을 보았다.

첫 석식에 60유로 상당의 광어 플레이트와 3유로 상당의 냉수를 마시면서 미국을 떠난 고생의 시작을 실감했다. 숙소 래디슨 호텔은 안락했으나 다음 날 새벽 5시에 기상해 공항으로 다시 달려갈 생각에 일행들은 두 밤째 잠을 설쳤다.

비행기와 코펜하겐에서 첫 이틀 밤잠을 설친 셋째날 새벽 5시에 기상한 제3일, 노르웨이 서남단 항만 도시인 Bergen으로 가려고 코펜하겐 공항에서 체크 인 하는데 언어장애로 혼란을 겪고 일행은 1시간 후 버겐 공항에서 노르웨이 한국 안내원의 영접을 받았다.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버겐은 바이킹이 정착해 개척한 인구 50만의 항만 도시. 15~17세기 게르만족과 Hansa동맹 때 번창했던 목조 건물들과 장터가 아직 활용되며 항구에는 크루즈 선박들이 정박해 있고 그 여행객들로 거리가 붐볐다.

해발 320미터 Floyen 산정의 전망대에 케이블 카로 오른 후 버겐 시내와 항구의 전경에 첫 함성을 터뜨렸다.

오후에 전용버스는 서부 협만(fjord)들과 산악의 터널들을 관통하며 100km 동북방의 Voss에 도달했다. 이곳에서 해발 863m인 Myrdal고원까지 열차로 이동, Aurland해협 Flaam까지 빙하가 깎아 이룬 20여km를 산악열차로 내려가면서 절벽과 폭포들, 구비마다 펼쳐지는 절경에 탄성을 터뜨렸다.

제4일, 아침 9시 보스를 출발해 Sogne 해협을 따라 서북방으로 가면서 페리와 터널들을 거쳐 Briksdal에 도착, 빙하수 폭포 식당에서 낭만적인 중식을 나누고 7인승 전동차로 브럭스달 빙하 밑까지 약 2km의 구비길을 올랐다. 폭포 밑을 지날 때는 우비로 가리고 빙하의 찬물에 손을 담가 보았다.

버스는 다시 산간의 평원, 목장의 양떼와 소떼들과 도로 차지하기 경쟁을 하면서 내륙까지 깊숙이 뻗친 피요드(바닷물의 계곡) 절벽 끝에 겨우 열린 1차선 도로를 따라 곡예하면서 Hellesylt 동네에 도착했다. 거기서 페리 선박에 버스를 싣고 Geiranger 협만 양측의 깎아지른 800~1천m 절벽의 농장들과 폭포들을 보며 게이랑에르 마을 역사유물이라는 '유니언 호텔'에 투숙했다.

제5일, 조식 후 게이랑에르에서 1천m 절벽 위로 구비구비 '독수리의 길'을 오른 후 산정의 '뷰 포인트' 멈춰, 떠나온 마을과 해협을 내려다 보는 장관에 일행은 또 다시 "와아" 함성을 터뜨렸다.

북쪽으로 Andalsnes까지 85km, 약 2시간의 산악 고원 도로에서 '요정의 길(Troll-vegen)'에 들어섰다. 버스 운전사도 숨을 죽이고 내리막 길 Zig-Zag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 '괴물의 길'에서 일행은 양측 절벽의 수백미터 폭포들의 아름다움과 현기증을 일으키는 아랫길의 구도에 숨을 멈추고 무사히 내려가기를 마음 속으로 간구했다. 그 다음 연속되는 '악마의 벽' 계곡은 '솔베이지의 노래'의 본향이다.

이 계곡의 전설 속 인물, 페어 귄트(Peer Gynt)라는 방랑자의 생애를 극작가 Henrik Ibsen이 5막의 드라마 각본으로 1867년 출판하면서 피아니스트 Edvard Grieg에게 부탁해 작곡한 음악중 4막에 Solveig's Song이 나온다.

무책임한 남편 귄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절따라 애간장을 태우며 부르는 아내의 노래다. 귄트가 방랑 끝에 이골짜기로 아내를 찾아왔을 때 솔베이지는 흰 머리의 노파가 돼 있더라는 슬픈 사연이다.

버스가 이 계곡을 통과하는 약 90분 동안 일행은 안내원이 준비한 이 음악 전부를 정경에 맞춰 감상했다. "노르웨이 여행은 자연경관이 전부"라는 안내원의 말대로 세계 명소들을 여행해 본 회원들도 발틱해 크루즈 대신 노르웨이 내륙 코스를 선택한 이번 여행에 모두 흡족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이날 오후 늦게 일행은 199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Lillehammer에 잠깐 들러 스키 점프대의 훈련을 본 후 노르웨이 수도 Oslo에 도착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 때 숙박한 그랜드 호텔에 체크인, 석식 후 몇 커플들이 칼 요한 거리 카페들의 실외 식도락가들을 보며 왕궁 뜰을 향해 나섰다.

오슬로의 페리 항만으로 나가는 길에 노벨 재단 건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다가 빠른 댄스 음악에 이끌려 여러 민족의 관광객들이 제멋대로 스텝을 맞추며 몸을 흔들어대는 페리 부두에서 황혼을 맞았다.

제6일, 여성해방 문학 '인형의 집'의 작가 Henrik Ibsen이 자주 들렀다는 그랜드 호텔 카페에서, 입센이 칼 요한 거리를 내다보며 즐겼을(?) 창가의 테이블에서 우리 부부가 아침식사를 할 기회를 가졌다.

오전에 노벨상 시상 장소인 오슬로 시청사의 공식 행사가 없어 여유있게 둘러보았다. 노벨상 수상자 포디엄에 올라서 수상자를 자처하는 연설 모습을 나도 카메라에 담았다. 이어 노르웨이의 세계적 조각가 Gustav Vigeland(1869~1943)의 작품으로 조성한 공원에 들어섰다. 80에이커 평지에 길이 850m를 주축으로 6개 구역을 이룬 이 공원에는 212개의 청동 및 화강암 조각품들이 설치돼 있다. 그 중 최고의 인기는 '단 합 의 단 (Monolith Plateau)'이다. 계단위에 121개의 인간 나체상들을 36개 그룹으로 모아 나체상들이 엉킨 14m 타워를 중심으로 배열, 한 덩어리 원형의 화강석 제단을 이룬다. 이 공원은 스케치를 1919년에 시작, 1944년 대중에 공개됐다고 한다.

이어 바이킹 역사 박물관에 들러 820년대에 제작됐을 것이라는 바이킹 목조선의 잔해를 살폈다. 길이 22m에 미달하는 이 작은 배는 장례용이었다고 한다. 이런 작은 배에 30여명이 탑승하고 그린랜드를 거쳐 미 대륙에 처음 도착했던 것이 바이킹이라는 문헌을 뒷받침하기에 너무 빈약해 보였다.

오후 4시, 오슬로 관람을 생략하고 비행기 편으로 1시간만에 스웨덴의 수도 Stockholm에 도착했다. 유람선 부두를 어느 창문에서든지 볼 수 있는 Adriande 호텔, 오랜만에 넓은 공간에 여장을 풀었다.

제7일, 스캔디나비아 반도 동남쪽 발틱 해안에 1252년 탄생한 스톡홀름은 인구 200만, 14개의 섬들을 연결한 고전적 도시지만 세계 제1의 개인소득에 걸맞게 친환경 도시로 단연 1위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이 도시의 세계적 자랑거리인 Vasa 전함 박물관은 스웨덴이 유럽 강대국이던 17세기 Gustavus Adolphus 황제가 유럽을 휩쓴 30년 종교전쟁(1618 발발) 때 건조한 호화전투함이다. 길이 69m, 300명 수병과 64문의 대포를 적재한 1천2백톤의 목조 전함이 1628년 진수하여 30분만에 침몰했다.

디자인이 잘못되고 배에 너무 사치스런 것들은 많아 자체 중량에 못 이겨 침몰한 것이다. 300년이 지난 1961년 인양해 이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그 인양기술이 한국의 천안함 인양에도 지원됐다고 한다.

정부 청사기보다는 예술의 전당으로 꾸민 시청사(Blue Hall)도 관람했다. 노벨상 수상식은 오슬로에서, 수상자 만찬은 스톡홀름 시청사에서 열린다는데 마치 대통령궁 또는 사원을 방불케 단장돼 있다.

오후 4시, 발틱 해협을 건너는 유람선에 올랐다. 침실은 좁았지만 선상 시설은 편리했다. 석식후 선상의 유스 바(노래 방)에서 노령의 동문들이 미끈히 빠진 금발의 Nordic 20대와 노래를 주고 받았다.

제8일, 선상에서 1박하고 아침 9시 도착한 핀란드의 Helsinki에서는 바이킹과 슬라브 양대 민족에 끼어 생존해온 핀란드의 문화가 스칸디나비아보다 뒤진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핀 민족의 언어에 우랄산맥계(Uralic)근원이 있어 서북아시아 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석기시대부터 핀란드에 살아온 원주민의 후예라는 설이 유력하다.

핀란드 국민도 80% 이상이 루터교 신도지만 우리가 첫 방문한 우스펜스키 사원(Uspenski Cathedral)은 러시아 정교회다. 북부 유럽에서 가장 큰 동방정교회 사원으로 19세기 러시아 지배 때 건립된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귀중한 아이콘들을 소장하고 있다. 마침 일요일이라 모두 서서 미사를 드리는 중간에 끼어 사찰을 잠시 눈요기하고 나왔다.

원로원 광장(Senate Square)에 우뚝 선 헬싱키 대성전(Helsinki Cathedral)은 루터교회인데 주일 미사 때문에 입장을 못하고 카메라에 담았다. 제정 러시아 때(1852년) 건축된 흰 벽과 코린티안 기둥으로 받쳐진 지붕에 5개의 원형 돔이 있는 이 교회는 언덕에 있어 시내 도처에서 눈에 띈다.

헬싱키 시내 서부의 암석교회(Temppeliaukio)는 빙하시대에 형성된 암석을 폭파해 벽을 삼고 돔 형태의 지붕에서 채광하는 특유한 건물로 음향장치가 좋아 헬싱키의 연주회 장소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이 루터교회에도 오전에 들러 주일 미사 장면을 잠시 관람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고취한 Finlandia를 작곡하고 심포니 5번으로 명성을 남긴 국민음악가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1865-1957) 기념공원에 들렀다. 시벨리우스 기념물은 600개의 강철 파이프로 만든 올갠 모형의 탑(폭 10m,무게 24t)으로 그 모델이 유네스코과 유엔 본부에도 설치된 명물이다.

이날 중식후 일행은 시내 항만 '마켓 플레이스'에서 토산품들을 둘러본 후 페리로 15분 거리에 있는 Suomenlinna 섬 요새를 방문했다.

유네스코 지정 유물인 이 6개 섬의 요새는 스웨덴이 지배하던 1748년 러시아에 대항해 구축하기 시작했으나 1809년 스웨덴이 러시아에 핀란드를 양도함으로써 러시아가 유럽 세력들을 견제하는 기지로 강화돼 수차례 해전을 치렀다.

러시아 해군이 1877년 설치한 6인치포 포대들이 아직 섬을 둘러싸며 남아 있다. 이 포는 1905년 러일 전쟁 때도 사용됐던 당시 최대의 무기였다.

섬에서 나온 일행은 Moscow 행 오후 6시45분 비행기에 오르려고 서둘러 헬싱키 공항으로 향했다.

노르웨이 버건의 플레엔 산정에서 아내와 함께

10□□ 15~22□:Layout _Aug_Temp 2010-10-12 □□ 1:37 Page 6



# 고국 동문

# 신간 • 공연

## 신간

### ■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 지음

소설가 박완서(국문 50입)동문이 4년만에 펴낸 산문집.

올해로 등단 40주년이자 팔순을 맞이한 박 동문은 아직도 글을 쓸 수 있는 기력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모르고 있는 것들에 감동 받을 수 있는 삶은 박 동문에게 늘 새롭고 경이로운 시간으로 다가온다.

이번 산문집에서는 노작가의 연륜과 깊이 있는 성찰을 엿볼 수 있다.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의 깨달음,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의 글들이 담겨 있다. 김수환 추기경, 소설가 박경리, 박수근 화백 등 먼저 떠난 빛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가슴 찡한 그리움도 함께 털어놓았다. <현대문학 간행 · 값 12,000원〉

### ■ 수줍은 배낭
-이주한 지음

대한민국 공무원문인협회 회장을 지낸 시인 이주한(역사교육 53~57) 동문의 체험을 근원으로 한 인식과 성찰의 문제를 65편의 서정시에 담았다.

중국 당나라의 시인 白居易는 '시는 정을 뿌리로 하고, 말을 싹으로 하며, 소리를 꽃으로 하고, 의미를 열매로 한다' 는 논지로 시를 설명한다. 그의 말을 신뢰한다면 여기 이 동문이 들려주는 잔잔한 음성의 소리는 분명히 꽃으로 피어나 그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 동문은 보편적 사물인 흙을 대하면서 느낀 최고의 진실을 작품 창작에까지 연결해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인생과의 교감을 시도했다. 〈월간문학 출판부 간행 · 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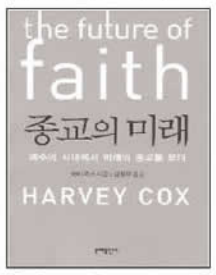
### ■ 바람의 지도
- 이원로 지음

한국 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인 인제대 이원로(의학 56~62)총장의 시집.

월간 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 동문은 이번 시집에 빛이 있는 영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혼의 노래와 원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고백을 담아냈다. 문학평론가 정신재 씨는 이 동문의 시에는 기쁨과 희열, 고뇌와 고통이 그 실존적 상황에 따라 형상화돼 있어 행복으로 나아가는 통과의례를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70여 편의 시를 통해 이 동문의 인술과 아름다운 혼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문연 간행 · 값 8,000원〉

### ■ 종교의 미래
- 김창락 옮김



한신대 신학과 교수를 지낸 김창락(영문 56~62)동문이 하버드대 하비 콕스 교수가 2009년 정년퇴임을 맞아 출간한 책을 번역했다.

20세기 10대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콕스 교수는 이 책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 사항을 담아내고자 했다.

첫째는 지난 2천년간의 그리스도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신의 신앙생활의 편력을 기술하는 것이다.

콕스 교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본래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왜곡됐으며, 어떻게 그 본래적 생명력으로 되살아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역사적 실재에 근거해 귀납적으로 도출해냈다. 〈문예출판사 간행 · 값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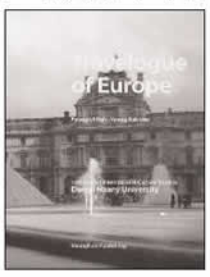
### ■ 집으로 돌아와서
- 이창국 지음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인 중앙대 영어교육과 이창국(영어교육 60~64)명예교수가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한 후 쓴 글들을 묶은 세 번째 수필집.

각 편마다 퇴직이 가져온 크고 작은 일상의 변화, 그리고 노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느낀 감회가 때로는 진솔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녹아 있다.

'내려가는 길도 올라가는 길만큼이나 어렵고 힘들다' 고 말한다. 그러나 그 내려오는 길은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스스로를 웃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유머와 함께 아름답게 빛난다. 〈아모르문디 간행 · 값10,000원〉

### ■ Travelogue of Europe
- 노병선 공저



대구한의대 연구교수인 노병선(수의학61 ~ 65)동문이 부인 이영숙 씨와 함께 영어로 쓴 유럽 여행서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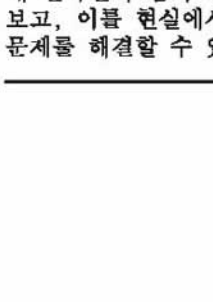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등을 돌아보며 유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문 영어로 담아냈다. 동유럽 특유의 분위기와 특색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면서, 간결하고 평이한 단어로 이뤄져 꼭 한 번 유럽여행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소박한 여행, 가벼운 여행, 마음을 설레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행이야기와 더불어 중간에 수록된 흑백 사진이 운치를 더해준다. 〈영한문화사 간행 · 값 12,000원〉

## 공연

### ■ 안현정 국악작곡발표회
국립국악원

제9회 서울 국악대경연 최연소 대상 수상자인 작곡가 안현정(국악 93~97 사진)동문이 10월 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작곡가와 친구들' 을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지난 2006년 제1회 작곡발표회 '만남, 그리고 동행' 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국악기악을 비롯해 창작판소리, 남성합창, 비디오퍼포먼스 등을 보이는 것이다.

### ■ 붓다 브레인
- 장현갑 · 장주영 옮김



미국 웰스프링 신경과학 · 명상지혜연구소를 공동설립한 신경심리학자이자 명상지도자인 릭 핸슨과 리처드 멘디우스의 작품을 영남대 심리학과 장현갑(심리 61~65)명예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분자실험의학부 인턴연구원 출신인 장주영(화학 88~93)동문이 함께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뇌과학에 대한 신경학 등의 최근 연구에 불교 명상 전통에 근거한 고대 통찰과 지혜를 덧붙여 우리 마음을 일깨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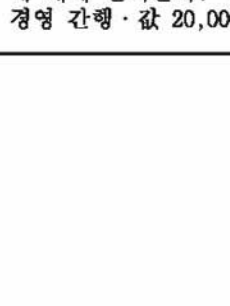
특히 뇌가 행복하고 사랑에 넘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준다. 〈불광출판사 간행 · 값 18,000원〉

### ■ 융,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 이나미 지음

융의 심리 분석 기법으로 살펴보는 현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책.

국내 최초로 융 심리 분석 자격을 가진 이나미(의학 81~85 모교 정신과학교실 겸임 부교수)동문이 우리의 옛이야기 민담을 통해 한국인의 내면에 숨어 있는 집단 무의식의 정체를 파헤친다. 정신분석학 중에서도 융의 분석 심리학은 집단 무의식에 집중하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본태적 심성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와 관련된 보다 넓은 의미의 집단 무의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민담에 융의 심리 분석기법을 더해 현대 한국인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 이를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 〈민음인 간행 · 값 13,000원〉

### ■ 테미스
- 박문서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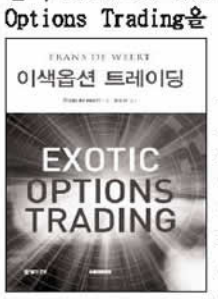


모교 건축과 박문서(건축 85~89)교수가 건축과 수재들의 건설산업 입문기를 다룬 소설.

이 책은 건설산업에 대한 전문 교양서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 편의 소설로서도 완결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시립박물관, 해운대 트리폴스퀘어, 우면산 터널, 인천국제공항 등 거대한 무대를 배경으로 사실과 허구를 아우르며 펼쳐지는 치열한 입찰의 현장. 이는 이 책이 소설이라는 형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됐음을 확인하게 한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주인공 모습은, 사회에 입문하는 이 시대 모든 젊은이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서울대출판문화원 간행 · 값 9,000원〉

### ■ 이색옵션 트레이딩
- 홍성관 옮김



동부증권 OTC마케팅팀에 근무하는 홍성관(경제 99~06)동문이 Frans de Weert의 Exotic Options Trading을 번역 출간했다.

옵션을 실제로 다루는 전문가와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 또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색옵션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알려주고,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복잡한 이색옵션들의 가격을 산출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은 모든 이색옵션에 대하여 실용적인 함축성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경제경영 간행 · 값 20,000원〉

##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문학작품(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기타 )과 동문들의 동정(직업 변경, 이사, 활동사항 등)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동문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편집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e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량은 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2페이지 정도(한글 약 3천자)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너무 길 때는 부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동창회와 연락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단과대학및 입학연도,그리고 거주지역을 밝혀주셔야 동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 :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10□□ 15~22□:Layout _Aug_Temp 2010-10-12 □□ 1:37 Page 7



# 고국동문 동정 수상 • 인사

## 수상

▲김준호(법학 52~56 도란 캐피탈 파트너스 상임고문)=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창립 50주년 기념식서 금융노조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 수상.

▲장 명 봉 (행 정 63~72 국민대 명예교수)=8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4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박상윤(의학 73~79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장)=최근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제2회 우수논문 학술상 수상.

▲박용호(수의학 74~78 모교 수의학과 교수)=최근 낙농진흥회로부터 2010년 한국낙농대상(낙농과학기술부문) 수상.

▲우유철(조선공학 76~80 현대 INI스틸 전 부사장 · 현대제철 사장)=최근 제11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정종경(약학 81~85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최근 생명약학연구회와 한국약제학회가 수여하는 올해 '생명약학 학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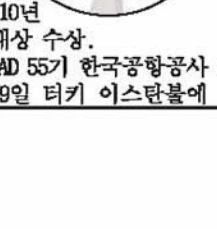
▲정해진(해양 82~86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8월 20일 여천생태연구회로부터 올해의 여천생태상 수상.

▲민기복(자원공학 89~94 모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최근 미국암반공학협회 수여 2010년 암반공학 사례연구상 수상.

▲홍용택(전기공학 90~94 모교 전기공학부 교수)=최근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와 대한전자공학회(IEEK)가 공동 수여하는 `IT 젊은 공학자상' 수상.

▲具藝璃(국어교육 95~99 경향신문 기자)=최근 한국편집기자협회로부터 제107회 이달의 편집상(피처 · 문화부문) 수상.

▲이동준(AMP 29기 · SGS 14기 코리아골프아트빌리지 회장 · SGS동창회장)=최근 국제지역학회(IAAS) 2010년 글로벌경영대상 수상.



▲성시철(ACAD 55기 한국공항공사 사장)=9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국제 비즈니스 대상(IBA) 시상식에서 최고경영자(CEO) 본상, 아시아 CEO 본상, 마케팅 본상 수상.

## 인사

▲정 병 기 (농 경 제 52~57 세계은행 전 농업전문 컨설턴트)= 최근 恒齋 鄭宗榮 선생의 선비정신과 전통을 선양하고자 발족한 항재문화사상연구회 회장에 취임.

▲이 원 로 (의 학 56~62 인제학원 이사 겸 명예의료원장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8월 24일 인제대 제5대 총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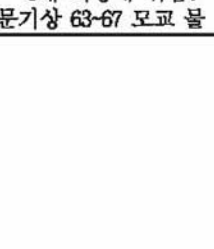
▲이 제 훈 (사 학 58~64 중앙일보 전 사장 · BBB 코리아 회장)=최근 아동복지전문기관 어린이재단 회장에 선임.

▲정종욱(외교 59~65 전 주중 대사 · 모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최근 동아대 국제학부 석좌교수로 임용.

▲김필식(농가정 61~65 동신대 이사장 · 한국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최근 전남 나주 동신대 제6대 총장에 취임.

▲권 영 빈 (사 학 61~65 중앙일보 전 사장 · 경기문화재단 대표)=9월 1일 임기 2년의 경기문화재단 대표에 재선임.

▲양수길(화학공학 63~67 경제협력개발기구 전 대사)=최근 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위원장(장관급)에 위촉.



▲임돈희(고고인류 64~68 동국대 석좌교수)=최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아이티 문화유산보호 국제전문가에 위촉.



▲노명완(국어교육 66~73 고려대 교수)=8월 16일 사단법인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제8대 회장에 취임.

▲홍승수(천문기상 63~67 모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최근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초대 원장에 취임.

▲이희범(전자공학 67~71 SIX에너지 · 중공업 회장)=지난 9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5대 회장에 취임.

▲유 우 익 (지 리 67~71 주중 대사)= 8월 24일 주중 외국대사로는 처음으로 중국 적십자회 명예회 원에 위촉.

▲강광하(경제 67~71 모교 전 기획실장 · 모교 경제학부 교수)=최근 지식경제부 제2대 정책자문위원장에 위촉.

▲임상규(금속공학 68~72 전 농림부 장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문 · 순천대 교수)= 최근 순천대 제6대 총장에 취임.

▲김창록(무역 69~73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 · 한국산업은행 전 총재)=최근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 마켓 고문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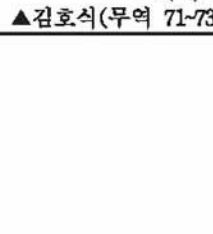
▲김진규(의학 70~76 모교 검사의학교실 교수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 9월 1일 건국대 제18대 총장 취임.

▲김 성 규 (행 대 원 70~72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시 이아쿠알라대 교환교수)=최근 시이아쿠알라대 한국문화원장에 취임.

▲박군철(원자핵공학 71~75 모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초대 부원장에 선임.

▲윤철호(농공학 71~7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8월 13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평의원회의에서 회장에 선출.

▲김진태(법학 71~75 대검찰청 전 형사부장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최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김 명 곤 (독 어 교육 71~76 문화관광부 전 장관)=최근 '2010 세계대백제전' 개 · 폐막식 총감독에 선임.



▲김호식(무역 71~73 해양수산부 전 장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이사장)= 최근 시장경제연구원 원장에 선임.

▲이 준 규 (법 학 72~76 주뉴질랜드 전 대사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 대사)=지난 8월 13일 외교안보연구원장에 내정.

▲김 이 환 (신 대 원 72~75 한국광고주협회 전 상근부회장 · 언론정보학과 대학원동창회장)=최근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 임용.

▲서기석(법학 73~77 서울고등법원 전 수석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장)=지난 8월 20일 충청북도 제41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

▲박성희(가정관리 73~77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최근 충청북도 세명대 교양과정부 초빙교수에 위촉. 또 9월 1일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로 임용.

▲추성엽(해양 75~79 STX팬오션 기획관리담당 부사장)=9월 1일 STX지주부문 사장에 선임.

▲임 기 철 (공 업 화학 75~7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최근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실 과학기술비서관에 임명.

▲오 병 주 (법 학 75~79 변호사)=8월 13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위원장에 내정.

▲임정혁(법학 75~79 수원지방검찰청 전 성남지청장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최근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취임.

▲양승오(의학 75~81 을지대병원 영상의학센터장)=8월 1일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과 ·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선임.

▲이 용 걸 (경 제 76~80 기획재정부 전 예산실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8월 16일 국방부 차관에 임명.

▲김혜경(가정관리 75~79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최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여성가족비서관에 임명.

▲이인호(경제 76~80 모교 경제학부 교수)=8월 25일 한국금융정보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

▲신상호(기계설계 76~80 SIX유럽 최고운영 책임자)=9월 1일 SIX조선해양 조선소장(사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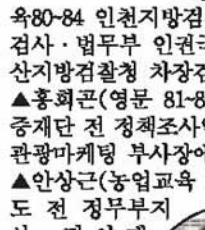
▲이효수(대학원 78졸 영남대 총장)=11월 17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2010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조직위원에 위촉.

▲임권수(법학 77~81 부산지방검찰청 전 동부지청장 ·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최근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취임.

▲민정기(독문 78~82 신한은행 GS타워대기업금융센터장)=8월 25일 신한금융지주 전무에 선임.

▲김창경(금속공학 78~82 청와대 전 과학비서관 · 한양대 교수)=8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에 임명.

▲문재우(행대원 78~80 금융감독원 전 감사)=8월 23일 손해보험협회 임시총회에서 제51대 회장에 선임.



▲송찬엽(사회교육80~84 인천지방검찰청 전 차장검사 · 법무부 인권국장)=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취임.

▲홍희곤(영문 81~85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정책조사역)=최근 서울관광마케팅 부사장에 선임.

▲안상근(농업교육 81~85 경상남도 전 정무부지사 · 가야대 대외협력부총장)= 8월 16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 임명.

▲김태석(행대원 81~88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지난 8월 17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초대 이사장에 임명.

▲강경필(공법82~8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 전문위원 ·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최근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에 취임.

10ㄱㄱ 23ㄱ(ㄱㄱㄱㄱ):Aug_Rev 2010-10-12 ㄱㄱ 1:35 Page 1



#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2010년 7월1일~10월7일까지)

## 2010~11 동창회비납부동문

### Alaska
윤제중(농대55)

### Alabama
유성무(상대66)
장세문(상대59)

### Arizona
지영환(의대59)
최윤근(공대59)

### California
강동순(법대59)
강신호(사대49)
강정진(문리60)
강정훈(미대56)
강중경(공대48)
강천호(사대58)
강홍재(상대53)
강회창(공대57)
고영철(의대45)
권기상(경영72)
권길상(음대45)
권영덕(공대54)
권영제(의대57)
권오형(사대61)
권중건(치대65)
기옥진(문리52)
김경무(공대69)
김경수(치대58)
김경옥(음대62)
김계윤(의대57)
김광하(치대46)
김기덕(사회대)
김기태(의대52)
김낙구(상대67)
김동성(행정59)
김명원(치대56)
김병완(공대58)
김병호(상대57)
김상엽(공대57)
김생철(법대54)
김석홍(법대59)
김선명(공대75)
김순길(법대54)
김영기(의대53)
김영덕(법대58)
김영배(미대61)
김영석(문리54)
김영한(법대54)
김용수(경영74)
김원탁(공대65)
김원호(약대63)
김은희(치대46)
김익창(의대49)
김재종(치대62)
김정복(사대55)
김정빈(공대66)
김정희(음대56)
김지익(의대45)
김진호(약대64)
김창무(음대50)
김태곤(공대59)
김태웅(의대57)
김한평(치대65)
김현순(간호69)
김현호(문리59)
김홍서(의대63)
김회창(공대64)
나두섭(의대66)
남장우(사대56)
노명호(공대61)
노재민(문리9 )
문인일(공대51)
민경탁(의대61)
민영기(치대61)
박경호(사대53)
박경화(문리46)
박병원(의대49)
박순자(간호60)
박원준(공대53)
박은덕(치대68)
박익순(수의74)
박인수(농대64)
박정모(문리66)
박종성(법대53)
박종수(수의58)
박취서(약대60)
박형철(사대72)
박회규(수의55)
방명진(공대73)
방정자(간호61)
배병옥(음대58)
백소진(문리55)
백승호(치대55)
부영무(치대70)
서정하(공대55)
서치원(공대69)
신대식(상대60)
신우식(치대62)
손학식(공대61)
송정자(의대67)
신영규(치대57)
심상은(상대54)
안백영(공대75)
안현중(음대56)
양광주(문리58)
양승문(공대65)
양태준(상대56)
염동해(농대74)
오명주(간호77)
오양숙(간호60)
오찬수(약대57)
유석홍(상대61)
윤희성(치대65)
은윤석(공대50)
이강원(인문76)
이건섭(치대54)
이경수(수의73)
이근설(상대56)
이근원(공대67)
이근웅(의대61)
이길자(약대63)
이동섭(사대36)
이동목(의대52)
이명규(미대73)
이문상(공대62)
이미정(의대76)
이방기(농대59)
이병우(법대54)
이상문(의대54)
이상훈(공대63)
이성웅(음대58)
이승훈(상대74)
이연행(문리68)
이영송(치대63)
이영수(상대60)
이원택(의대65)
이재룡(공대71)
이정옥(공대52)
이정옥(생활71)
이종걸(상대53)
이창무(공대54)
이채진(문리55)
이필권(보대65)
이학근(치대63)
이해영(공대56)
이홍표(의대58)
이효경(치대63)
이희순
임동규(미대57)
임용오(의대57)
임정란(음대76)
임진자(미대60)
임진한(치대68)
임춘수(의대57)
임화식(치대59)
장기열(치대55)
장동석(문리66)
전낙관(사대60)
전범수(농대71)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동석(공대57)
정두호(공대64)
정복근(사대69)
정문용(상대54)
정수만(의대66)
정원훈(상대38)
정인환(법대54)
정재훈(공대64)
정진수(공대56)
정태무(사대44)
정형민(문리71)
정 황(공대64)
제영혜(생활71)
조동준(의대57)
조만연(상대58)
조상하(치대54)
조성윤(법대46)
조정시(공대60)
조태묵(사대60)
주수봉(공대67)
지인수(상대59)
채낙영(음대52)
최명용(음대64)
최복영(사대56)
최승륜(상대53)
최영순(간호69)
최왕욱(공대69)
최재윤(문리54)
최준호(치대58)
최태근(법대48)
하기환(공대66)
하상원(대학원)
한종철(치대62)
한평철(상대64)
한태호(인문75)
한효동(공대58)
허영진(문리61)
현원영(사대45)
홍춘만(문리58)
황동하(의대65)
황만익(사대59)

### Colorado
정화용(사대61)

### Connecticut
김기훈(상대52)

### Delaware
문대옥(의대67)
안세현(의대62)
이재성(공대70)

### Florida
신쌍재(수의59)
안창현(의대55)
양찬기(의대57)
오석일(의대64)
윤홍철(의대56)
이정필(의대58)
이중오(의대58)
정진목(의대51)
한기빈(공대52)
한용현(의대44)

### Georgia
김영서(상대54)
김용건(문리48)
방창모(문리49)
손종수(의대50)
임수암(공대62)
정량수(의대60)
정인태(의대58)
최우백(공대76)

### Hawaii
김승태(의대57)
김창원(공대49)
박장부(의대61)
윤상철(약대47)

### Illinois
강창만(의대58)
강화영(문리48)
계훈택(의대55)
고병철(법대55)
구경회(의대59)
김갑조(간호51)
김갑중(의대57)
김대균(공대60)
김사직(상대59)
김영호(의대71)
김옥자(간호60)
김윤범(의대54)
김일훈(의대51)
김재환(사대72)
김현옥(문리67)
노갑준(의대72)
노영일(의대62)
박 숙(의대64)
박영규(농대57)
박인숙(미대69)
박창옥(공대56)
박홍근(공대64)
배영섭(의대54)
백영구(대원61)
서상헌(의대65)
송원희(미대60)
송재현(의대46)
신석균(문리54)
안은식(문리55)
양승표(문리57)
유기정(간호72)
이강욱(공대86)
이덕수(문리58)
이맹희(상대52)
이소희(의대61)
이소희(간호68)
이승자(사대60)
이승훈(공대66)
이시영(상대46)
이용락(공대48)
이윤모(농대57)
이진주(문리55)
이춘우(치대54)
임이섭(미대54)
임현재(의대59)
장시경(약대58)
장윤일(공대60)
정병욱(의대53)
정승규(공대60)
정영숙(사대59)
정지희(문리55)
정 호(공대62)
조대현(공대57)
조민규(문리50)
조봉완(법대53)
조중행(의대63)
조 철(공대49)
조형원(약대50)
진보린(약대56)
천양곡(의대63)
최순분(간호57)
최순용(문리61)
최애옥(간호47)
최의필(의대53)
최혜숙(의대53)
한의일(공대62)
한재은(의대59)
함성택(문리55)
홍 건(의대54)
황치룡(문리65)

### Indiana
곽일섭(의대60)
이종일(의대65)
임영신(의대54)
한원종(수의83)
현운석(법대64)

### Iowa
서만길(의대61)

### Kansas
배규영(사대68)
오명순(생활69)
지일성(의대61)

### Maryland
강창욱(의대55)
공순옥(간호66)
권철수(의대68)
김성우(공대59)
김응한(상대46)
남옥현(경영84)
박명영(의대68)
박찬효(약대67)
석균범(문리61)
소숙영(간호64)
송병준(약대72)
신구용(공대59)
안창호(약대70)
엄승용(농대57)
오인환(문리63)
유덕영(공대57)
이영휘(상대55)
이재승(의대55)
이준영(약대74)
임필순(의대54)
전경철(공대55)
전병구(의대46)
정두현(의대56)
정요셉(사대70)
조세진(의대65)
최경수(문리54)
홍영석(공대58)

### Massachusetts
박재영 (문리48)
정태진(의대53)
최홍균(공대69)

### Meine
채도경(의대59)

### Michigan
권영조(의대55)
김국화(공대60)
김용호(약대69)
김정일(의대57)
김창구(의대65)
남상용(공대52)
서영일(의대62)
신동화(문리55)
오상현(의대65)
이상일(의대54)
이성길(의대65)
이영모(의대53)
이한중(의대59)
장병호(의대66)
장 철(의대65)
장현식(의대64)
차대양(공대55)
채무원(의대59)
하계현(공대64)

### Minnesota
권학주(치대59)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배병칠(문리65)
변우진(인문81)
왕규현(의대56)

### Nebraska
김명자(문리62)

### Nevada
이관 (공대55)

### New England
고일석(보대69)
윤희경(문리62)

### N.Carolina
이석형(사대56)
조동림(의대52)
최종진(의대63)

### N.Dakota
박경선(농대60)

### New Jersey
고순정(간호69)
곽선섭(공대61)
권오근(상대58)
김광현(미대57)
김동건(사대67)
김명철(공대60)
김성수(상대64)
김양호(의대51)
김영길(문리62)
김영만(상대59)
김영무(공대75)
김완주(의대54)
김정빈 (약대 54)
김한종(의대56)
류제은(미대71)
박건이(공대60)
박경룡(약대63)
박성일(상대58)
박순영(법대56)
박익수(사대52)
박진우(상대77)
박태호(상대76)
반영철(약대54)
배명애(간호47)
서정웅(약대63)
성옥진(치대67)
손갑수(약대59)
손광호(의대59)
송기인(의대60)
송영우(사대64)
송용섭(농대63)
신두식(의대52)
신정택(약대52)
안인섭(법대53)
양문석(상대54)
양성택(상대 )
엄종열(미대61)
오용호(의대66)
육순제(의대63)
윤광선(공대67)
윤영돈(법대69)
윤준식(법대58)
윤현남(공대64)
이경림(상대64)
이경태(공대63)
이능석(의대57)
이문휘(문리54)
이성근(의대60)
이유찬(의대58)
이재덕(법대60)
이제원(법대60)
이천구(농대60)
이종석(상대57)
이종환(법대51)
정용국(공대50)
최준희(의대58)
탁명양(약대52)
한인섭(약대 )
허선행(의대58)

### New York
강충무(사대60)
곽승용(의대65)
권영구(상대61)
권영국(상대60)
김동욱(법대55)
김문경(약대61)
김백균(의대76)
김병석(의대59)
김병술(약대52)
김상만(법대52)
김석식(의대58)
김석자(음대61)
김성현(약대56)
김세중(공대50)
김승호(공대71)
김우영(상대60)
김원영(미대81)
김인형(미대59)
김정희(간호69)
김종원(사대58)
김진승(문리53)
김진자(간호60)
김창화(미대65)
김태욱(공대55)
김현중(공대63)
김호현(의대46)
남상래(간호66)
노용면(의대49)
박정식(사대59)
박현성(약대60)
라홍채(공대62)
박고자(음대61)
박수안(의대59)
박순영(법대56)
박찬명(약대57)
선종칠(의대57)
성기로(약대57)
송영순(사대60)

##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서

작성일: 년 월 일

성명:(한글) (영문)

단과대: 대학원: 학과: 입학 년도:

현주소:

전주소:

전화/집: Cell: E-mail:

**동창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 회계년도

2009. 7. 1.- 2010. 6. 30. ☐ $75

2010. 7. 1.- 2011. 6. 30. ☐ $75

**관악 후원금**

| | | | |
|---|---|---|---|
| $200 | $200+ | $500 | $1,000 |
| $200 | $200+ | $500 | $1,000 |

종신 어사비 ☐ $3,000 | 모교발전기금 [백만불기금] ☐ | 자부 분담금 ☐

**• 지불방법 (Check or Credit Card)**

Amount: $

☐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Send to: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Card Holder Name:

Card: Visa ☐ Master Card ☐

Card No.:

Security Code: Exp. Date:

Signature:

10ㄱㄱ 23ㄱ(ㄱㄱㄱ):Aug_Rev 2010-10-12 ㄱㄱ 1:35 Page 2



#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양거영(의대49)
양금자(미대69)
양세관(경영66)
염상진(상대77)
유광현(의대58)
유무영(공대66)
윤병남(사대62)
윤병하(농대80)
윤봉균(사대54)
윤영섭(의대57)
이국진(사대51)
이기준(문리66)
이대영(문리64)
이승우(약대63)
이영애(치대52)
이영애(농대59)
이오연(문리61)
이준행(공대48)
이현호(공대58)
이회경(의대55)
이회자(간호70)
임진식(음대52)
임규하(경영98)
임대묵(의대58)

임충섭(미대60)
장영식(법대59)
전응상(공대46)
정인식(상대58)
정택수(문리46)
조종수(공대64)
조태환(상대56)
천병수(공대70)
최영혜(간호64)
한승신(의대70)
한용진(미대55)
황문하(수의76)

## Ohio

고남규(의대61)
김용헌(경영66)
김윤성(의대63)
김한교(문리47)
명인재(자연75)
손기용(의대55)
송용덕(의대57)
송용재(의대63)
신영찬(의대63)
이범세(의대56)

이영웅(의대56)
이용재(공대60)
최인갑(공대57)
홍준표(의대58)

## Oklahoma

김경숙(생활70)
이상강(의대70)
차봉희(의대51)

## Oregon

김상만(음대46)
김상순(상대67)
김영자(간호53)
이은설(문리53)
최근녕(법대63)
최동근(문리50)

## Pennsylvania

강영배(수의59)
고병은(문리55)
김용국(의대58)
김주진(법대54)

김현영(수의58)
남영선(공대72)
박영한(약대68)
손재옥(생활77)
송영두(의대56)
신선자(사대60)
심완섭(의대67)
양운택(의대58)
오진석(치대56)
윤정나(음대57)
이규호(공대56)
이만택(의대52)
이성숙(생과74)
이재성(공대70)
이혜원(의대55)
장성환(의대55)
전희곤(의대54)
주기목(수의68)
전희곤(의대54)
제갈은(문리59)

## RhodeIsland

고일석(보대69)

## Tennessee

오세환(의대61)
정성장(의대43)

## Texas

곽노환(문리48)
김기준(공대60)
김동수(의대61)
김옥균(공대54)
김의신(의대60)
김진만(공대57)
김태훈(공대57)
민동식(농대70)
박민자(사대58)
박유미(약대62)
신달수(공대59)
유길선(농대73)
유세만(공대59)
이길영(문리59)
이영재(상대58)
이규진(약대60)
조시호(문리59)

최성호(문리58)
최용천(의대53)
탁순덕(사대57)

## Virginia

길인수(상대45)
김기봉(공대63)
김세량(공대62)
박상근(법대75)
박용걸(약대56)
박일영(문리59)
박경훈(상대55)
박인영(의대69)
방정화(의대61)
변만식(사대49)
우갑상(공대71)
유홍열(문리74)
이규섭(상대68)
이상익(의대52)
이재우(상대81)
이중희(의대59)
이진호(공대48)
조경윤(공대67)
조요윤(공대61)

최규식(상대64)
최준호(공대60)

## W.Virginia

황훈규(의대62)

## Washington

김윤국(문리49)
김주웅(의대57)
박종수(공대74)
박진수(의대56)
신창범(법대73)
양용관(수의62)
이대원(사대58)
이제성(공대95)
이종성(의대58)

## Wisconsin

이영균(의대61)
장 홍(문리61)

***2009-10년 회비 명단 누락 동문**

강영빈(문리58)
고길산(약대69)
고의걸(의대55)
권대원(경영59)
김경옥(음대62)
김동건(사대67)
김영철(의대55)
김성범(상대50)
김성현(약대56)
김용덕(의대53
김원영(미대81)
김인형(미대59)
김창화(미대65)
길인수(상대45)
박순자(간호60)
박영옥(사대55)
박용순(의대53)
송성균(공대 )
신경호(의대57)
신영찬(의대63)
엄승용(농대57)

윤경숙(문리59)
이영일(문리53)
이영휘(상대55)
이종태(공대54)
이종환(법대51)
이찬주(문리63)
임창희(공대73)
임한응(공대60)
장세문(상대59)
정준영(문리67)
최경수(문리54)
최경윤(사대51)
최대한(의대53)
한영준(사대60)
황준오(치대70)
황현상(의대55)

# 기타 후원회비및 기금납부 동문

## 관악후원회비

### California

김석홍(법대59)200
김재종(치대62)200
김한평(치대65)200
박정모(문리66) 25
박춰서(약대60) 25
염동헤(농대74)1000
이승훈(상대74)425
이영일(문리3)1000
정동구(공대57)200
정복근(사대69) 25
정원훈(상대38)200
최재윤(문리54)200
하기환(공대66)100

### Connecticut

김기훈(상대52)200

### Florida

이문휘(문리54) 25
전응상(공대46)200

### Hawaii

김승태(의대57)100
김창원(공대49)200

### Illinois

구경회(의대9)1000
김윤범(의대54)200
노영일(의대62)200
박 숙(의대64)1000
박영규(농대57)200
이승자(사대60)200
이용락(공대8)1000
임현재(의대59)500
장윤일(공대60)200
조대현(공대57)200
조봉완(법대53)200
조형원(약대50)100
한제은(의대59)200

### Iousiana

강영빈(문리58)200

### Maryland

강창옥(의대55)200
권철수(의대68)200
오인환(문리63)200
전경철(공대55)200
정두현(의대56)200

### Minnesota

김태환(의대58)200

### New Jersey

김동건(사대67)200
김명철(공대60)200
김영만(상대59)200
박태호(상대76)500
윤현남(공대64)200
허선행(의대58)200

### New York

강충무(사대60)200
권영국(상대60)200
성기로(약대57)200
염상진(상대77)200
이준행(공대48)1000

### Ohio

김한교(문리47)200
명인재(자연75)200
송용덕(의대57)200

### Oklahoma

김경숙(생활70)200
이상강(의대70)200

### Oregon

김상순(상대67)225

### Philadelphia

손재옥(생활77)200
송성균(공대 ) 200

### Texas

김동수(의대60)200
김태훈(공대57)200
조시호(문리59)225

### Virginia

박상근(법대75) 25
이규섭(상대68)200

### Washington

신창범(법대73)200

## 광고비

### California

강동원(수의75)120
김경옥(음대62)120
김광현(상대69)120
김규정(사대77)120
방명진(공대73)150
문덕수(공대73)240
성락호(치대65)120
신동국(수의76)120
이강원(인문76)120
정수만(의대66)120
차기민(공대85)120

### Georgia

이영진(공대76)120

### Illinois

이춘우(치대54)120

### Maryland

엄승용(농대57)150
최경수(문리54)150

### Minnesota

왕규현(의대56)200

### New York

강충무(사대60)120
박성남(사대76)150
윤병하(농대80)200

### Ohio

신영찬(의대63)150

## 평의원회비

### Chicago지부

강수상(의대 47)
고병철(법대 55)
구경회(의대 59)
김사적(상대 59)
김정주(문리 60)

노영일(의대 62)
박 숙(의대 64)
박연희(간호 61)
박영규(농대 57)
송순영(문리 52)
이용락(공대 48)
이승자(사대 60)
이영우(문리 66)
정 호(공대 62)
조대현(공대 57)
한상호(의대 56)
한재은(의대 59)
남상용(공대 52)

### Heartland지부

구명순(간호 66)
김명자(문리 62)
배규영(사대 68)

### Houston지부

조시호(문리 59)

### LA(남가주)지부

강호석(상대 81)
김은종(상대 59)
지인수(상대)

### New England지부

박경민(의대 53)
윤희경(문리 62)

고일석(보대 69)
윤상래(수의 62)

### New York지부

강충무(사대 60)
김창수(약대 64)
오인석(법대 58)
이전구(농대 60)
이준행(공대 48)
한경수(문리 57)

### Philadelphia 지부

고병은(문리 55)
서중민(공대 64)
손재옥(생활 77)
조화연(음대 64)

### Sanfrancisco (북가주)지부

황만익(사대 59)

### Ohio지부

최인갑(공대 57)
김용헌(약대 53)

### Washington지부

강연식(사대 58)
김영미(생활 70)

박평일(농대 69)
오인환(문리 63)
이영묵(공대 59)

### Toronto(CANADA) 지부

한성택(의대 51)

### 특별후원금

### 모교총장실

3,000

### 임광수 동창회장

3,000

##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빌딩 임차안내

### 임대 면적

▶지하 1층(임대면적 125평)=매점, 식당 등
▶지상 1층=갤러리 임대 완료
▶지상 2~16층=업무용 사무실 등(기준층 임대면적 374평)
▶지상 17~18층=자가 사용

### 임대의 장점

▶장학재단에서 100%출자해 건축한 건물이라 재정적으로 안전합니다.

▶임대 수익금이 서울대 지원사업으로 사용되는 공익을 위한 건물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공항철도가 교차되는 지하철 공덕역에 인접한 건물이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주차공간 160대가 확보되고 도심 사무공간으로는 드물게 녹지 공간이 풍부한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광화문을 잇는 서울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 배후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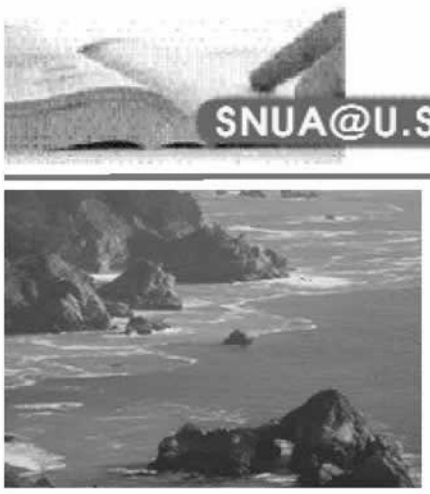
### 임대의 조건

▶최소 1개층 단위로 임대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임차료에 준합니다.

**임대문의 전화 02-702-223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10ㄱㄱ 24-26(ㄱㄱㄱ):Layout 1 2010-10-12 ㄱㄱ 1:39 Page 1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 CA 남가주

### 건축/컨설팅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동(공대 58) (213)384-3730
2525 W. 8th St.#201 L.A. CA 90057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무 강경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Corp
윤홍원 (사회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한인훼드럴 크레딧유니온
이명일(문리대 53)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설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6@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천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10ㄱㄱ 24-26(ㄱㄱㄱ):Layout 1 2010-10-12 ㄱㄱ 1:39 Page 2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묘(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운장학회
오재민(치대 33) ◦ (626) 284-9782
1420 Abajo Dr.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송환(사대 54) ◦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 서비스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I-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 수의사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 (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l.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 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 스토어/하드웨어/엔지니어링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충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quez CA

###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인(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중규 치과그룹**
* 권중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명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r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10ㄱㄱ 24-26(ㄱㄱㄱ):Layout 1 2010-10-12 ㄱㄱ 1:39 Page 3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Los Angeles CA 90006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 의료/내과/전문의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명수(의대 47) •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오(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MD,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음대 56) •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ma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 제조업/제생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전기전등)
정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 종교 / 사찰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West Ca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 한방의원/한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Life Acupuncture Clinic
김병삼(공대 52)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84졸업) (858) 525-3222
4228 Convoy St. San Diego CA 92111

### 수의사 /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 북 가주

### 상담/ 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451-0240 /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 수의사 /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회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의료/전문의/치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 한의원/한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10ㄱㄱ 27-29(ㄱㄱㄱ):Layout 1 2010-10-12 ㄱㄱ 1:41 Page 1



## DC,MD,VA 워싱턴DC

###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mington DE 19808

### 변호사 / 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 부동산 / 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 비영리 재단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 엔지니어링 / 항공

**Drivetech,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 수의사 / 동물병원 / 요식업

한의생(수의 60) ◦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t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rwyn Heights, MD

###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 FL 플로리다

### 리테일러 / 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이대 67)
8200 NW 27the Ave., Maiami, FL 33056

##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 리테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 IL-IN 시카고

###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 언 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07657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 부동산 / 중개업 / 재정상담

로얄 부동산
엄무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nm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샬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 수의사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 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회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 (847) 675-0882
64 Old Rchard Shopping Center,#426 Skokie IL 60077

### 학원 / 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065

## MA 뉴잉글랜드

### 수의사 / 동물병원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 의료 / 내과 / 전문의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 MI 미시간

###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 부동산 / 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 NJ-NY 뉴욕/뉴저지

###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 (201) 945-7879
321 Broad Ave., #B-3 Ridgefield NJ 07657

###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Lauren Ceville NJ 08648

###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10ㄱㄱ 27-29(ㄱㄱㄱ):Layout 1 2010-10-12 ㄱㄱ 1:41 Page 2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 금융 / 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염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9 Fort Lee NJ 07024

## 무역 / 종합상사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몽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 상담 / 재정설계

송기뢰 기술상담
송기뢰(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유럽 전지역 투어 (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순례 *전 지역 크루즈 투어 *고국 방문 및 아시아 투어
*전 지역 AIR TICKET
800-229-6225 / Fax : (212)239-0999

## 서비스 / 클리너 / 잠금장치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 수의사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 언론 / 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묵(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10ㄱㄱ 27-29(ㄱㄱㄱ):Layout 1 2010-10-12 ㄱㄱ 1:41 Page 3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욱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d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웅(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응(의대 61) ◦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 의료 / 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 (516) 378-0119
131 Merrick Ave.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로(약대 57)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NJ 07074

###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 종교 / 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 학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 OH 오하이오

### 상담 / 생활설계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 수의자 / 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홍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 의료 / 내과 / 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Lancaster OH 43130

## OK 하들랜드

### 의 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 OR 오레곤

### 교 회

*엘림 한인교회
최근녕 (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mington DE 19808

### 금융 / 보험 /리테일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rsham PA

### 비영리법인 / 리테일 / 잡화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d. #D-202 Melrose Park PA 19027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 (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홍민 (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ital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효(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 연회장 / 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 (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 (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 (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y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 의료 / 약국

**쌍동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 의료 / 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 (치대 64) (215) 224 -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 (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 HOU 휴스턴

### 수의사 / 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 (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 장의사

**한국 장의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aire Blvd. Houston TX 77083

10ㄱㄱ 30~32(ㄱㄱㄱ Back ㄱ):Aug_Rev 2010-10-12 ㄱㄱ 1:42 Page 1



### 엔지니어링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lum Inc.
명인성(공대 50)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 UT 유타

서비스 / 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9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 부동산 / 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253)851-1658
1505 Crescent Lake Dr.N.W. Gig Harbor WA 98332

### 의료 / 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 WI 위스컨신

###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 미주동창회 조직과임원단

###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흥조(치) 이영욱(공)

명예회장 : 이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종(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회(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행(공)

###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태환(의)

###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중민(공) 한재은(의)
신응남(농) 김지영(사)

###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숙(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 박영규(농) 김재영(농)

### 회보 임원및 임원

발 행 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민규(문) 조봉완(법) 조대현(공)
구경회(의) 이승자(사) 정 호(공) 홍혜례(사)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채흥(NY) 백 순(DC) 오강남(BC)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교(SF) 정홍택(PA) 한창섭(NY)

# 각 지부회의 회장단

| | | |
|---|---|---|
| 남가주 | 회장 | 김은종(상대 59입) ekim@pcr-ims.com |
| | 차기회장 | 한종철(치대 62입) 562-860-8544 |
| 북가주 | 회장 |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
| | 차기회장 |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
| 샌디에이고 | 회장 |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
| | 차기회장 | 임용갑(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yeem@gmail.com |
| 뉴욕 | 회장 | 에드워드 강(사대 60입) |
| | 차기회장 | |
| 워싱턴DC | 회장 | 공순옥(간호대 66입) 410-461-4425 ssong0019@verizon.com |
| | 차기회장 | |
| 시카고 | 회장 |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oung.kim007@gmail.com |
| | 차기회장 |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
| 필라델피아 | 회장 | 조화연(음대 64입) 610-328-2563 |
| | 차기회장 | 주기목(수의 68입) 215-938-1097 |
| 휴스턴 | 회장 | 박흥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c@msn.com |
| | 차기회장 |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
| 댈러스 | 회장 |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
| | 차기회장 | 이석호(공대 78입) 972-475-1184 |
| 조지아 | 회장 |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
| | 차기회장 |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
| 뉴잉글랜드 | 회장 | 윤희경(문리 62입) 508-740-9188 |
| | 차기회장 | 김병국(공대 71입) |
| 미네소타 | 회장 |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
| | 차기회장 |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akcheolshin@gmail.com |
| 워싱턴주 | 회장 |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
| | 차기회장 | 이승택(수의대 75) 253-874-3558 |
| 오하이오 | 회장 |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
| | 차기회장 | |
| 하와이 | 회장 |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
| | 차기회장 |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
| 하틀랜드 | 회장 |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
| | 차기회장 | 구명순(간호대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
| 플로리다 | 회장 | |
| | 차기회장 |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
| 유타 | 회장 |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tah.edu |
| | 차기회장 |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
| 캐롤라이나 | 회장 |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541 |
| | 차기회장 | |
| 로키 마운틴스 | 회장 | 전남인(사대 72입) 719-592-0037 jhonjieun@hotmail.com |
| | 차기회장 | |
| 애리조나 | 회장 | 오윤환 yhoh@ratheon.com |
| | 차기회장 | |
| 오레곤 | 회장 | 백대현(상대 ) 503-587-0447 |
| | 차기회장 | 박희진(문리 57입) 503-848-6803 |
| 알래스카 | 회장 |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
| | 차기회장 |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
| 캐나다 온타리오 | 회장 | 한성택(약대 58입) 416-293-6138 samhahn@activebioresearch.com |
| | 차기회장 |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gmail.com |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 박하일(문리 59입) 604-266-7955 hailpark@telus.net |
| | 차기회장 | 이 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 이근흥(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com |
| | 차기회장 |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

10ㄱㄱ 30~32(ㄱㄱㄱ Backㄱ):Aug_Rev 2010-10-12 ㄱㄱ 1:42 Page 2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 USA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linois 60093
E-mail: snuaahq@gmail.com Phone & Fax: (847) 441-0011

## 2013년도 회장후보 추천공고

서울대 미주 동창회 에서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동문중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12대 동창회장(임기: 2013.7.1 ~ 2015. 6.30) 의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정관 및 추천위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회장후보 추천서 접수 마감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차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싶은 동문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일

서울대 미주 동창회 인선 위원장 이전구 (제 9대 회장)

*** 연락처**

이전구 직전 회장 (917-514-1939)
송순영 현직 회장 (312-805-9202)
김은종 차기 회장 (310 -373-2200)

## 제12대 회장(2013년도 회장)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 1. 선거 일정

▶2010년 12월 31일 :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2011년 5월 : 제20차 평의원 회의(정기 총회)에서 투표, 차차기 회장 당선자 확정

### 2. 근거 규정(Nomination Committee(Standing) Rules and Regulations)

**▶제 2조(위원의 구성과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은 현 총회장, 전임 총회장, 각 지역 동창회장, 평의원 2 명 이상이 추천하여 평의원 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위원 수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위원회는 6 명의 위원과 1 명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나)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이 한다.
(마)지역 평의원들 가운데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평의원회의에서 4 명의 위원을 뽑는다(단, 평의원 가운데 전총회장은 제외한다).
지역안배라 함은 특정지역에서 중복위원을 피함을 뜻한다.

**▶제 3조(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본 세칙 1 조에 기술한 목적에 수반되는 후보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당 후보 추천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며 복수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총 회장은 추천에 따른 후보들을 회장단에서 검토한 후 평의원회의 투표에 붙인다.
평의원회에서 당일 별도 후보 추천을 받을 수 있 으며 추천위원회 후보자들과 함께 투표에 붙인다.

**▶제 4조(후보 대상 분야, 심사기준 및 추천 절차)**
후보 대상 분야 - 차차기 총회장 후보

### 3. 심사기준

차차기 회장 후보는 재미 서울대 지역 동창회 회장을 역임했거나 혹은 총동창회장단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준 동문, 혹은 일반 회원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 4. 추천 절차

후보 추천위원회는 평의원회에서 차차기 회장 후보자 추천을 공고하고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본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회장단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여 다음 평의원회에서 선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차차기 총회장 선거가 있는 해의 평의원회 6개월 전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여, 위의 심사 기준을 토대로 후보자들의 자격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사용한다.
추천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감사의 필요 외에는 비밀로 한다.

### 5. 후보자 출마 의견발표

차차기 총회장 후보로 추천 받는 경우 평의원회 혹은 미주 동창회보등을 통하여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포부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10ㄱㄱ 30~32(ㄱㄱㄱ Back):Aug_Rev 2010-10-12 ㄱㄱ 1:42 Page 3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 'Brain Network Workshop'

**"겨레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서울대 미주 동창회에서는 조국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학자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Workshop을 개최합니다.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정치사회분과**(사회 : 이채진 석좌교수 Claremont McKenna College)

강명구 교수(Claremont McKenna College,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전망)
박한식 석좌교수(Univ. of Georgia, 북한 정치의 현황과 전망)
유의영 명예교수(Cal. State Univ.-Los Angeles, 남과 북의 사회문화적 차이 : 과제와 전망)
김한교 명예교수(Univ. of Cincinnati, 올바른 통일관의 함양)

**2.경제분과**(사회 : 장용성 교수 Univ. of Rochester)

장세문 교수(Univ. of S.Alabama, 남북한 무역과 경제협력)
윤봉준 교수(State Univ. of New York, 남북 통합을 대비한 경제 제도 정비 : 노동, 복지를 중심으로)
김선웅 교수(Univ. of Wisconsin-Milwaukee, 한국의 교육및 R & D정책의 이슈들)
정진길 교수(Howard University, 체제 전환국의 환률정책과 효과가 남북한에 시사하는 정치 경제적 의미)

**3.종합 토론** (사회 : 고병철 명예교수 Univ. of Illinois at Chicago)

**장소 : JJ Grand Hotel ( Tel 213-383-3000 )**
**620 S.Harvard Blvd.(Harvard & Wilshire) L.A. CA 90005**
**일시 : 2010년 11월 6일(9:00~16:30)**

연락처 : 서울대 미주동창회장 송순영(312-805-9202)
서울대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 김은종(310-373-2200)
서울대 LA사무소 사무국장 김인종(213-435-1974)